朝鮮日報 夕刊 十六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壯烈한空陸戰暴風裡에展開

空爆·敵根據地로集中!

【上海十六日發同盟至急報】虹橋、龍華兩飛行場의 爆擊을 마친 我空襲部隊는 淞滬警備司令部其他重要軍事機關의 爆擊을 行하고 잇는데 爆擊은 午前六時頃에 이르러도 아직 繼續하야 支那作戰根據點을 모조리 正確히 粉碎하고잇다

海軍飛行隊今曉出動
龍華、虹橋飛行場爆擊
支那機四十一基를擊破

【上海十六日發同盟】十五日의 我空襲으로 支那空軍이 바든損害는 南京其他를加하야 總數四十一機에達하야 上海의 防衛에當하고 잇든 空軍兵力의 七割을 일허버린셈이다 그內譯은 左와如하다

一、地上攻擊에서 戰鬪機 二十八基 大型攻擊機 二基
一、空中戰에서 戰鬪機十基 뽀ー트코르세어輕爆機 一基

【上海十六日發同盟】我航空部隊의 虹橋、龍華飛行場爆擊은 壯烈히展開되여 午前五時부터 轟轟한爆音은 上海上空을 흔들리고잇다

【上海十六日發同盟】數日來惡天候에 掩殺되던 ○○○의 我○○으로부터 勇躍出動한 我空軍部隊는 午前五時夜來의비도개인 上海上空에 悍勇勇敢스럽게나타나 低空飛行으로敢行하야 虹橋龍華飛行場으로向하엿다 同飛行場에는 支那空軍의 精銳마치爆擊機가 多數待機하고잇스므로 爆擊後에壯烈한 空中戰이 展開되려고하고잇다 此日구름은만흐나 數日來의 風雨도끄치고 視界는 넓어朝日이구름에비취여 實로壯絶을極한날이다

支那空軍主力卄機
陸戰隊本部爆擊
激烈한空中戰展開

【上海十六日發同盟至急報】午前七時四十分 支那空軍의 主力約二十機는 陸戰隊本部上空에 飛來하야 多數의 爆彈을 投下하엿다

【上海十六日發同盟至急報】午前八時頃에 襲來한 敵飛行隊는 虹橋 龍華兩飛行場의 爆擊에 赴한 我飛行隊와 空中戰을 演出하려고 하엿섯는데 敵은 다시 十三機로 編成된 增援機와 共同作戰을 取하고잇다

浦東의砲兵陣地
我軍艦砲擊開始
廣德、蘇州飛行場도空襲

【上海十六日發同盟至急報】軍艦○○은 午前九時三十分부터 浦東의有力한 敵砲兵陣地에 砲擊을 開始하야 目下이를 潰滅식키고잇다(午前九時五十分)

【上海十六日發同盟】我海軍空襲部隊는 十六日拂曉廣德蘇州各飛行場을 再次爆擊하야 殲滅的打擊을 與하엿다

今曉까지의戰況
海軍武官室發表

【上海十六日發同盟至急報】海軍武官室午前九時三十分發表

一、昨十五日朝○○基地를 出發한我海軍爆擊機는 風雨를무릅쓰고南京을 空襲하야 午前○時頃無事히 歸還하엿다 그結果敵의飛行基地全部에 對하야 殲滅的打擊을 與하야格納庫三個는炎炎히 延燒中이다
一、陸上에서 待機하고 잇는飛行機 十數以上을 擊破하고空中戰에서는 十機以上을 擊墜하다음 我飛行機는 全部歸還하엿다
一、今日黎明으로부터 上海周圍及興地飛行場에 對해모조리爆擊을敢行하야 陸戰隊 本部附近에잇는敵砲兵陣地에 對해來十數機가 果敢히 活躍中이다
一、今曉二時頃부터 閘北江灣方面의敵과 砲擊을 交하고잇다
一、午前五時十五分日本女學校方面에相當히 猛烈한 敵襲이잇섯다 陸戰隊本部附近에는第一線이잇섯스나 我方에는被害는업다

英、米婦女子
撤退키로決定

【上海十六日發同盟】英國司令長官의 命令으로 英國居留民婦女子는 明十七日부터 香港으로向하야 撤退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米國居留民撤退에 對하여도 萬般의 措置計畫이 決定되여 近近 婦女子撤退命令이總領事으로부터 發하게될러이다

敵迫擊砲彈에
邦人二名重傷

【上海十六日發同盟】午前六時半支那側에서 發射한 迫擊砲彈은 民山路에비까데前에 落下하야 通行中의 邦人二名이 重傷을負하고 即時 日本俱樂部에 收容하엿다

日銀參與理事에
池田成彬氏就任

【東京電話同盟】日銀에서는前結城總裁就任에 伴한參與理事의 選任은 來二十一日의 株主總會에서 滿鐵選擧하기로 되엿는데 前總裁池田成彬氏가새로 參與理事로就任하기로되엿다

敵砲兵、旗艦○○과
總領事館을砲擊

【上海十六日發同盟】敵은 我背後를 威脅하기爲하야 黃浦江右岸浦東으로 迂廻하야 砲兵陣地를 構築하고 午前九時半 旗艦○○及 總領事館을 目標로 砲擊하엿스나 一發도 命中치안헛다 我方은 아직 反擊을 加하지안코 沈着하게 敵이오기를待機하고잇다

我海軍航空隊
南京天地震撼

【上海十五日發同盟】十五日午後支那의 首都南京을 猛襲한 我海軍航空隊가 敢行한 南京飛行場爆擊은 極히壯烈하엿다 密雲이 깍더핀가운데에서南京을目標로하고 爆音勇敢스러이 銀翼을 벌린 海軍機가 紫金山上空에機影을 出現하자 忽然南京全市를 震撼시키며 市內外에 裝置된高射砲 高射機關銃은 一齊히火蓋를열어 轟轟한 銃砲擊은 我空軍의 投下하는 爆彈의 炸裂音과 相和하야 首都南京天地에 울리엿다 我空襲部隊는 約一千四百米의 高度를 保持하면서 整然한 編成으로써 前後하야 黃浦門外軍用機 格納庫及格納飛行機를 完全히 爆破하고 敵機는 家屋의 지붕을 달달할하게低空飛行을 敢行하엿다는것이다 援하려달려간 敵飛行機約十台와의 間에 壯烈한 空中戰을 演出하야 닥치는대로擊落시킨後 長距離에 亘한 荒天을 再次 翔破하야 我海空軍의 威力을 充分히 發揮하고 無事根據地로 歸還하야 我戰史上空前의 貴重한記錄을 남긴것이다

上海外國銀行
無期休業決定

【上海十五日發同盟】在上海外國銀行團은 十五日會議한結果 十六日부터 當分間無期休業하기로決定하고 그旨를邦人銀行에 通知하여왓스므로 日本側에서도 同一行動을取하기로決定하엿다 그리고 日本側銀行六行의代表者는 十五日午後六時 正金銀行에 參集하야 時局對策을協議한結果 休業中이라하더라도 在留邦人의 避難費用을爲한 預金引出은 特히 應하기로 決議하엿다

工部局對策講究
支那飛行機翔破

【上海十六日發同盟】十五日佛國租界工部當局은 佛國租界上空을 支那飛行機가 飛翔함을 默認할수업는바 今後如斯한 境遇에는 工部當局은 有効適切한 處置를 講究할 權利를保留한다는 旨를 發表하엿다

英、支機爆擊에憤慨
國府에嚴重抗議

【倫敦十五日發同盟至急報】英政府는 支那空軍이 上海共同租界에 있는 香港艦隊旗艦「카미바란드」號에 對하야 行한 不法爆擊을 極度로 憤慨하고 十五日南京駐箚英國大使에 訓令하야 國民政府에 對하야 强硬한抗議를 提出하는同時에 今後共同租界를 交戰地로 되지안토록 再次南京政府에 注意를 喚起하엿다

【倫敦十五日發同盟至急報】英政府는 上海의 日支交戰을 자못重視하고 十五日부터 居留民特히 婦女子에게 上海撤退를 命하엿는데 一方上海方面에잇서 自衛權의重大性에鑑하야 愼重對策을 考究하엿다고解釋된다 一方支那軍用機의 不法爆擊에 對하야는 十五日南京駐箚英國大使로부터 國民政府에對해 嚴重히 抗議시키고 다시上海를 作戰根據地로하지안토록 注意를 喚起하엿다 그리고 로이털通信社의報道에依하면 今後라도 英國의權益擁護하기爲하여서는 躊躇되지안코 有効한 手段을取할意向이라한다 英國側의 態度에 依하면 英國政府는 英佛兩國政府와 繼續하야 情報를交換하며 日支間의事態에 對해 最上의平和的方法을協議하고잇는데 日本에對해三國으로부터 共同勸告를取함은 현되히日本의國民的感情을 刺戟시킬念慮가잇스므로 此際問題外로하고 日本側의態度緩和를 要求하기爲하야 如何히할것인가에對해 智慧를짜고잇다고한다 右에對해 英國側은日本政府의 對支貿易重大性이란 立場으로부터事態不擴大에 努力하더고 希望하고잇다

(寫眞은 長谷川 司令官)

「支那軍應援하는
一切飛行機爆擊」
長谷川司令官重大警告

【上海十六日發同盟】長谷川司令長官은 十六日 中外에 對해 左記警告를 發하엿다

帝國은 支那國內民間飛行場에와서 目下 帝國海軍에 對抗할 姿勢로써 支那軍用에 供하거나 帝國에對한 抗日揮點이되고 又는될만한 可能性이 잇다고 確認하는것에 對하여는 帝國海軍은 自衛上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手段을講究할것이오 右民間飛行場에잇는 軍用機는 勿論 民間機라하더라도 軍用에轉化할수잇는者에 對하야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處置를講究할것인바 右手段의 結果 發生할수잇는 不慮의 危害를 避하기爲하야 一般平和的人民은 國籍의如何를不問하고 右飛行場及 그近接地域에 接近하지안흘것을 警告한다

上海居留民保護
英政府에서決定

【倫敦十五日發同盟】英國政府는 上海의 日支交戰에 鑑하야 自國居留民의 生命安全을 極히 憂慮하고잇더니 外務次官서·로버트·반시타트氏는 十五日午後 外務省에 陸海兩軍首腦와 軍事專門家를 招致하고 英國居留民保護의 具體策에 對해 長時間에亘하야 愼重히 協議를 遂한結果 左와如히 決定하엿다

一、香港駐屯軍으로부터 一個大隊를 上海로 至急增派할것
二、英國居留民 特히婦女子는 共同租界로부터 撤退하도록 手配할것

右決定에基하야 반시타ㄹ트次官은 即時 上海駐箚總領事서·존·보레난氏에 訓電을 發하야 撤退準備를 命하엿다

南口敵陣後方
空陸呼應하야爆擊

【南口鎭에서 同盟特派員十五日發】南口攻擊은 十四日夜來의 荒天을 冒하야 마침내 猛烈化하엿는데 中富部隊는 十五日午前十一時頃 南口北方八達嶺附近을 爆擊하고 長城關門은 無慘하게도 破壞되여 石片 岩片은 때마침 集結中인 支那軍에 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다 이날에 구름은 낫고 我○○機는 雖航空機를 飛翔하야 低空을 排하고 一彈又一彈 果敢한 爆擊을 敢行하야 後方陣地를 完全히 粉碎攪亂하엿다 그때문에 支那空軍은 進路를不得已相當外로 取할밧게업게되엿다

南口高地占據

【天津十六日發同盟至急報】我軍은 十五日夜南口鎭南側의 高地를 確實히占據하엿다

佛軍支那機射擊

【上海十六日發同盟至急報】佛國駐屯軍은 佛租界上空을 通過한 支那飛行機에 高射砲를 發射하엿다

米內海相參內

【東京電話同盟】米內海相은 十五日午後五時 宮中에 參內 天皇陛下께拜謁하고 上海方面의 情勢를 奏上하고 여려가지御下問에 奉答하고 御前을 退下하엿다

總領事館警察에
敵軍爆彈命中

【上海十六日發同盟至急報】十六日午前十一時三十三分 敵爆擊機七機飛來하야 ○○及警察方面에 爆彈數發을投下하얏다 그中一個는 總領事館建物과 軍艦○○附近에落下하야 大穴을내이고 他一發은 總領事館警察의 발코니에 命中하엿는데 總領事館警察秋葉第一課長은 重傷을 바덧슴에 自己의 傷處는 그리크지안흐니 君들은 即時 部署에도라가 全員을 講堂에 모으고 警戒에 當하라고 指令하야 職務를 잇지못하는 課長의 態度에 一同은 感激하엿다

【上海十六日發同盟】秋葉第一課長은 執務中 重傷을負하엿는데 自己의 負傷에도 不拘하고 同伴하여온 部下에 向하야 指揮하엿다 그리고 秋葉第一課長은 最近愛知縣特高課長으로부터 着任한지 얼마안되엿으로 目下 福民病院에 收容되여잇다

各地居留民撤退

【廣東十五日發同盟至急報】廣東在留邦人百五十餘名(男子百四十餘名、女十餘名)은 十七日正午에 出帆하는 廣山丸으로 中村總領事에 引率되여 正式으로 避難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런데 邦人所有家屋은 十五日 英國總領事立會下에 嚴重히 封印하야 存置하기로되엿다

【濟南十六日發同盟】揚子江沿岸에잇는 領事館員、陸海軍武官、新聞、通信記者等의 撤退邦人一行百四十五名은 十五日午前十時南京對岸 浦口驛을 出發하야 時氣分이 橫溢한 津浦線을 北上하는途中 中央軍의 輸送하는軍用列車의 輻湊때문에 一時遲延되여 十六日午前五時 濟南到着 다시 쉬일새도업시 再次 靑島로 向하야 出發하엿다

【上海十六日發同盟】戰禍를 避難하기로 하야 歸國하는 邦人婦女子 千五百名은 十五日夕刻 暴風雨를 衝하고 殺到하야 同日午後十一時半 入港한 郵船龍田丸에 乘船하야 十六日午前四時戰亂의 都를뒤로두고 故國으로 向하엿다 그리고 長陽丸은 十六日午前中에 一千餘名을 乘船케하고 即時出帆할豫定이다

大野政務總監
新義州視察向發

大野政務總監은 平北水害狀況及 新義州地方初度巡察次 秦藥土木課長 天谷秘書官帶同 十七日午前九時 京城飛行場을떠나 新義州로向發

各學校休暇延期

【上海十六日發同盟】上海居留民團立各學校는 時局에 臨하야 八月末까지 臨時休暇하기로決定하엿는데 時局惡化로 九月末까지 休暇를延長하기로 決定하엿다

海峽植民地駐屯
英艦隊待機命令

【新嘉坡十六日發同盟】海峽植民地라이필駐屯英國 第二럭자부隊第一大隊의 半部隊는 十六日早曉二日以內로香港으로急行할수잇도록待機하라는 命令을바덧다

八面錄

◇非常時局 物價對策의하나로 朝鮮에잇는 政府所有米의 一部를 拂下키로內定。
◇秋風이 거듭불어오니, 조곰잇스면燃料에 對한 價格統制의 必要도생길것。
◇價格統制는 當局이할일이지만 消費統制는 民間이自發的으로 해야되지안흘가。
◇다시말하면 物資가窮乏하게되는境遇에는 무엇보다節約이必要。

號外五次發行

本社에서는 上海事變으로 十五日夜로부터 十六日午前까지 不再錄號外兩次 再錄號外三次를發行하엿슴니다。

001625

大阪着名商店案內

家庭用諸金物卸
アルミニューム 銅眞鍮亞鉛鉄鉛 日用家庭諸金物
大阪市東區南本町四丁目
大阪銅器合資會社

どうどん機械特價賣出
營業用大型 ウドンソバソウメン 一千五百圓까지 十圓前後各種 家庭用輕便型 飲食店農家用 支那ソバ店用 에好適數種 スルメ延機 農鱗削機 コンニャク機 小型製粉機 噴霧機
大阪市港區市岡元町一ノ三三
島根鐵工所 電話西五七七四

營業品目
煙草入 巻莨入 キセル パイプ 眼鏡 各種
製造卸問屋
新型カタログ進呈
大阪市東區博勞町三丁目四番地
津田嘉助本店
電話船場四四四○番 振替大阪七五三四番

メリヤス雜貨製造卸
現品見本送付함 特約連鎖店募集 營業案內進呈
足立商會
振替大阪一○七○一番

秋冬物
ワイシャツ カッター
品質優良·柄行斬新 絕對格安提供!
製造卸 大阪市南區順慶町四丁目八三
野井集商店

バーゲン オーシ揃 現金問屋
冬物品揃!!!
●商報進呈(店章印押捺)
●見本市來店歡迎
●御通信は日本文の事
大阪市東區島町一丁目十二
株式會社 圓山商店 振替大阪57429

新興蕃椒粉 新興からし
냉국수·우동 豆腐 其他여러가지반찬의 고초가루
釜山 山西商店
京城 阿部本店
〃 辻本商店
〃 吉川商店
平壤 桑田商店
〃 江口商店
鎭南浦 山七商會
新義州 中山商店
〃 重枝商店
元山 小野本店
咸興 西村商店
〃 德元商店
類似品이 만히잇사오니 商標에注意하시오
月美人印 カレー からし ゴショ 製造本舖

料理の秘訣 此一匙は
旭味 アサヒ アヂ 純結晶·調味料
旭味 아사히 아지 純結晶調味料
旭味 アサヒ アヂ 純結晶·調味料
進時の新味

歸國支那人들의 債務處辨을陳情

京仁兩地債權者代表가外務部를訪問

總額卅萬圓의巨額

포연탄우(砲煙彈雨)에싸힌 북지(北支)와남지(南支)의 험악한풍운은 바야흐로심각을더하야 마침내일지량국간에 상취인(商取引)의길까지 끈허저서장래경제적 결렬까지염려하게된다 그리하야 경성인천(仁川)을중심으로재류지나인들은 매일속속철귀하는중 이들중에는 그들이바들것은 이번사변에 철귀할것을리유로 독촉 추심하고잇스나이와반대로 그들이 지불할것은 이번사변에 급거귀국한다는 것을 리유로 지불을거절한다고하야 이에대한 선처해결을 십사일 총독부외무부(外務部)에 진정한바잇섯다 그내용인즉 경성 인천량부에재류하야잇는 지나인상점은 약일천이백곳인데 이중에 주단포목, 식료잡화등 큰상점으로 그들이 지불하여야할 외상부채를 질머지고잇는 상점이 약이백곳에 그금액이 약삼십만원이라한다 그런데그들은 대개철귀를준비하면서 거래하든곳의 외상갑은 사변을구실로 지불을거절하고잇슴으로 내선인채권자중경성인천대표량명이 외무부를 방문하고 이에대한 선처해결을 진정한것이라한다 외무부에서는 그내용을상세히조사한후 경성지나총령사관당국자와협의하야 선처할터이라한다

辯護士筆記試驗 合格者는十一名

지난십사일 필기시험을 마친 조선변호사시험(辯護士試驗)필기시험합격자는 전부 십일명으로 다음과가티 십륙일오후한시 총독부법무국으로부터 발표한바잇섯다

▲金永子 ▲金一夕 ▲姜赫善 ▲洪賢道 ▲權寧壽 ▲城下貴男 ▲徐淳永 ▲全丙權 ▲中川利吉 ▲山田瀧吉 ▲李德宇

필기합격자는 이상과가튼데 이들에대하야는 오는이십이일 오전구시부터 구두시험을 보일터이라한다

流言蜚語做出者 八名을斷乎處分

方今取調中에잇는者도兩名

事變後京畿管內서

북지사변이 점점더확대되여가는 비상한때를당하야 총후의국민으로서 그임무에 더욱충실할것은물론이어니와 평소에 류언비어에대하야도 조심을해야된다함은 여러번본지에도 보도한바이엇는데 그래도 간간히 조심을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만허여지것 경기도안에서만 벌서아홉명이 류언비어로 경찰에붓잡히게되고 그중여덜명이 처벌을밧게되엿다 그중에는 심지어만주국관리까지끼여잇서 일반의큰경게꺼리가 되고잇는데 금후로시국에대한 여러가지 류언에대하야는 모두를절대로 조심하야입을 떼지안토록 주의하여야될것이다 이에대하야 십륙일 경기도경찰부장은 다음과가튼 담화를발표하엿다

▲江華郡仙源面農業 金寶洙(三八)…拘留十日
▲開城府池町 無職 金湯根(二五)…拘留二十五日
▲開城府滿月町 無職梁潑植(三七)…拘留十日
▲漣川郡郡內面 滿洲國官吏李載都(三三)…拘留二十五日
▲京城府杏村町新聞賣子吳文煥(二三)…拘留二十九日
▲京城府桃花町職工陳孝竇(二〇)…拘留二十九日
▲水原邑池野町無職姜達濱(三八)…拘留二十五日
▲京城府岡崎町材木店員張鳳奎(三九)……拘留二十九日
▲方今取調中內地人一名、朝鮮人一名

流言蜚語에對하야 高警察部長談

시국에 관한류언비어가 경기도내각지에 빈발하는 정상에잇슴은 심히유감으로 생각하는바다 그리고 그해악이 미치는영향이 또한심대한것에 비최여본도 경찰부에서는 사변발생이래 사법당국과 헌병대당국과 협력하야 각경찰서를 독려하야 예의 그취체를 엄중히하고잇는동시에 지금까지 본도내각서에서 검거처벌한자가 별항과가티 또금후계속하야 엄중취체를 단행하고 그경이 무거운자는 륙군형법의 조언비어(造言飛語)또는기타의범죄로서 단호한처분을 할방침임으로 도민 각위는 각각 류의하여잇다고는 생각하나 금후한층더 이런불상사범을 이르키지안토록 서로조심하야 총후국민의 의무로서 그절멸을기하는것은 시국이더욱중대한때에 간절히 바라마지안는바이다

婦女子에까지 時局을認識케

今日有志等懇談會

풍운협의한 북지(北支)시국은 다시 남지(南支)일대로 확대되어 국제도시로화려한 상해(上海)시가도 마침내포연탄우에 차혀서 피로물드린 수라장으로변하고마럿다 이와가튼 초비상시국에림하야 조선부인들의인식철저와밋이에대한 구현방법을강구하고자 부내관민유지십오인의발기로십륙일오후세시부터 경성부윤응접실에서 각신문관계자를비롯하야 각방면남녀명사를청하야간담회를개최하엿는데 당일출석한 발기인들은 다음과갓다

▲尹致彬 ▲白寬洙 ▲方應謨 ▲高性濬 ▲李允用 ▲李相協 ▲韓相龍 ▲孫貞圭 ▲金潤晶 ▲金永祚 ▲金活蘭 ▲金大羽 ▲申錫麟 ▲石鎭衡

從軍運轉手等 戰地에서活躍

얼마전에 경기도보안과(保安課)의 알선으로 북지사변에 종군하게된 자동차운전수중에 최근여러사람이 용감하게 건투하고잇는 소식을 군사우편으로경기도보안과로 보내여서 그게원수의 반가운소식이왓다 그중에도 최진희군은 천안(川岸)부대에 종군하야 지난달이십팔일천진(天津)전투에 천진역을사수하든 결사대에 자동차대로참가하야 탄환이 비오듯하는가운데서 만이주야간을 분전하야내엿다는 용감한 소식이자세하게 편지에 적혀잇섯다

强盜햇든그집에 竊盜次로再侵入?

金時計와時計줄을훔친者는 意外阿峴町强盜?

부내아현정(阿峴町)이백칠십칠번지삼화정미소(三和精米所)에지난이튿날 새벽세시경 강도가침입하야 돈을내라고 협박하다가 점원대남태사(大楠泰司)(三七)의머리에 상처를입히고 다라난지두주일이못되여 십사일에는 새벽네시경 간호정미소에 어떤자가창을부스고 침입하야 주인유기대(柳基大)이와 점원두사람이자고잇는방에서 시가일백 이십원의금시게 시계줄을 훔치고창고에들어가 밀가루포대를 훔처내여쌀밀물품을 훔처내가지고도망질한절도사건은 소관룡산서는물론시내각서에서 가튼자의 소위로추측하고 이래 엄중수사중십오일밤 전기절도의 진범인이동대문서에 체포되여 오리무중에차여버린듯한 강도사건에도 해결의서광이 비추어오고잇다

범인은 경기도 룡인군 원산면 사암리(龍仁郡遠山面沙岩里)태생 전과칠범 정수동(鄭壽童)(三六)이라는 대적으로 그는 십오일저녁여섯시경 전기정미소에서 훔친 금시계를 가지고 창신정(昌信町)사백륙십칠번지 중천(中川)전당포에 전집하려가든길에 동대문파출소 리인성(李仁成)순사에게 거동이수상히보혀 심문을당하자 시계를길우에 던지고 도망질하는것을 추격체포한것으로 취조한결과 그는 유월십일경일곱번째의 형을 인천형무소에서 마치고 나온자로 전기절도사실을 자백하며 십륙일 피해자에게도 품상을 보힌결과 완전히 해결되엿스나 강도사건은 전연부인하고잇다 그러나 인상착의 기타여러점으로 보아 그서에서는 강도의 혐의가농후하야 이점을 계속엄중히 추궁하는동시에 각방면으로 물적증거를 모호고잇는동시에 체포당시그가 가지고잇든 돈륙십여원의출처와 공범관계등도조사중이다

國防獻金還至

▲십륙일 룡산서보안계에 국방헌금 헌납자는 아래와갓다
一、金百圓 龍江町二八七 李允載氏
一、金五十圓 榮町一二一 北鄕方 北鄕友泰氏
一、金二十圓 龍江町四六八 李振球氏
一、金五十圓 龍江町六 李弼雲氏
一、金二十一圓八十錢 漢南町二 朴道吉外二十一名

▲십륙일동대문서와 종로서에서접수한국방헌금은 다음과갓다
▲東大門署接受分
一金五百圓 明倫町一丁目五一 張鉉植氏
▲鍾路署接受分
一金五圓 花洞町七三 宋庚駿氏 一金五百圓 壽松町四六의一七 李昌龍氏 一金四百圓 桂洞町一〇三尹德基氏 一金百圓昌成町一四二安泓氏 一金百圓光化門通一〇五方鍾鉉氏 一金十圓樂園町二八八韓魏洙氏 一金二十圓昭格町一五四金聖玉氏 一金十圓鍾路二丁目三千里社金東煥氏 一金二十圓慶雲町二二姜敎錫氏

大野政務總監 水害現地視察

十七日旅客機로出發

관서룡십년래 미증유의 대수재의 참담한자최는 본사특파원과 현재각지국원이 주야겸행으로 모험활동하야 판명되는대로 이래 계속보도하는바 이어니와 총독부에서는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이 상천벼해의 참상을 시찰하고자 진엽토목과장(榛葉土木課長)과 천곡비서관(天谷秘書官)을 대동하고 십칠일오전구시 여의도(如矣島)발림시려객비행기로 신의주를 향하야 출발할터인데 시찰일정은전후사일간의 예정이다

◇大野總監水害地視察日程 ▲十七日午前九時 京城如矣島發(旅客機)同日午前十一時二十分 新義州着 多獅島視察−新義州鐵道賓館 宿泊 ▲十八日新義州發−朔州着 午前中水害地視察同地宿泊▲十九日朔州發新義州着(以上自動車)▲同日新義州發(旅客機)同日午後五時京城如矣島着

柳生社會課長先發

대야정무총감이 관서일대수해참적을시찰하고자 십칠일오전구시반 림시 려객기로 출발한다함은 별항과갓거니와 내무국류생사회과장은 총감이현지에도착되기전에 평북도당국과 각반의 준비적협의를하기 위하야 십륙일오전칠시반경성발렬차로 신의주를 향하야선발하얏다

七月中鐵道旅客

比昨年同期 卅四萬名增加

지난칠월한달동안에 조선철도국선의 기차를탄 려객은 이백삼십칠만이천사백이십륙인으로 그 수입은 이백오십오만팔천륙백사십삼원인데 작년동기에 비하야 인원으로는 삼십사만구천사백팔십구인 수입으로는 사십팔만오천일백륙원의 증가라는 조흔성적을 나타내엿다한다

東洋視察次來壤

監理會傳道局總務 조선각방면을시찰도중에 平壤元山等地서演說

【平壤】 예수교감리회미국전도국(監理會傳道局)총무 북미합중국(北米合衆國)뉴―욕서의 『뮤톤』박사는 십삼일 오후두시오분착렬차로 남편쪽으로부터 평양역에도착하야 감리파각교회직원들의 환영리에 내경창리(景昌里)기독교병원(基督敎病院)구내선교사부인 합숙소에투숙햇다 『뮤톤』박사는 감리파인들중 권위자로 일본내지에서 각지방교회를 시찰한후조선에 건너온것으로 경성에들럿다가 이십사일 평양에 도착할예정이엇스나 예정을 변경하야 경성에도 들르지안코 돌연히 평양에온것이다 십사일에는 감리파교회련합주최로 환영회를 개최하고 십오일에는 련합례배회를 개최하고 『뮤톤』박사의 강연을듯기로되엿다 이번의 동양행각은 북평신학교(北平神學校)확장문제와 동양각지의 감리파교회사정을시찰하여 본국전도국에 보고하기로되엿는데 북평행은 시국관계로 불가능한관계로 단념하고 십오일 원산(元山)에서 개최되는 …기로되엿다

(사진좌는『뮤톤』박사 우는씨를마지한 정일형(鄭一亨)박사)

鐵道貨物賃金 日滿單一化

朝鮮을經由하여새로設定 十一月頃에는實施

【奉天十三日發同盟】 철도총국에서는 현하중이든 일만교통『뿔럭』 강화의 견지에서 일본내지와 조선 만주를 이어서 정인화물(小口扱)직통운임을 설정하려고 그전부터 철도성 조선철도당국과 반회사간의 운소기관과 절충중이던바 최근당국의 인가를어더 느저도 십일월경까지에는 실시하게되엿다 이직통운임제도는 종래의 일만간화물제도의 운임을 폐지하고 새로히직통운임을 특설하야 일만간화물취급의 간이화를 꾀하는동시에 무역의 신장에 기여하려는것으로 이실시는 각방면으로부터 기대되고잇다 그러고 이운임률은품종에 따라 다소의 상이는 잇스나 평균하면 종래의 합산운임에 비하야 이할가량의 대폭적인 하로되여잇서 어결과 만주의일용품잡화의 가격의 등귀는 완화하게되엿다

西湖津海上에 貨物船火災

乘組員全部는溺死?

【警務局着電】 십사일오후여섯시삼십분경함남도함주군서호면신중리(咸南咸州郡西湖面新中里)근해에서항해중의 화물선한척에화재가 이러나서 화력중천하고잇는것을소관서호주재소에서발견하고 주재소원과 소방조원이십명이 배로척에 나누어타고현장에출동하얏스나 때는이미저서 수면에나타난선체가 거의전부소실되엇스므로 엇절수업시손을대이지못하고마럿는데 승조원은 한명도발견할수업시 전부빠저서참사한듯하다고한다 발화의원인은 방금조사중이므로 상세히는알수업스나 그배에적재하엿든 휘발유와석유에불똥이 튀어서그와가티 발화소실된듯하다고한다 선적(船籍)과승조원을 모두알수업고 오직선체일부에 운화(海運丸)이라고 써위잇슬뿐이다 의사로추측되는 승조원의시체는 방금수사중이다

大邱에遠征한 高普野球團大勝

十A對二로大邱野球俱樂部粉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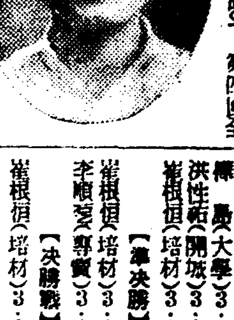
【大邱】 大邱運動具店招聘과 本社大邱支局後援의 球界의覇王인 京城高普野球團對 南鮮의 強豪 大邱俱樂部의 野球戰은 지난十五日午後四時半 大邱府外 大明洞球場에서 楊一得氏審判아래 大邱軍先攻으로 開始되엿는데 四回까지 四對二로 接戰을演하엿스나 實力의差로 京城軍이 八回에得點을 거듭하여 結局十A對二로 京城軍이大勝하다

【大邱】 [illegible]
【高普】 [illegible]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大邱軍	〇	〇	一	一	〇	〇	〇	〇	〇	2
高普軍	四	〇	〇	〇	一	一	三	一	A	10A

10A・2

卓球優勝 培材崔根恒君



朝鮮卓球協會主催의 第四回全朝鮮男女卓球選手權大會第二日의 男子單戰은 十五日午前十時半부터 漢源里町 大學豫科講堂에서 擧行하엿다함은 旣報한바이어니와 이날 決勝戰에드러가 培材崔根恒君은 專賣李順亨君을 三對一로 물리치고 優勝하엿다 (寫眞은 崔根恒君)

【第三回戰】
李順亨(專賣)3…2 印在煥(開城)
朴泰碩(演英)3…1 崔根春(開城)
權 勗(大學)3…2 李成鎬(總府)
文錫瑛(開城)3…0 金容聲(總府)
朴在馨(總府)3…1 深 堀(明星)
洪性祐(開城)3…1 田 中(總府)
羅 波(鐘紡)3…1 李東俊(總府)
崔根恒(培材)3…0 金相東(海州)

【準準決勝】
李順亨(專賣)3…2 朴泰碩(演英)
權 勗(大學)3…1 文錫瑛(開城)
洪性祐(開城)3…2 朴在馨(總府)
崔根恒(培材)3…2 羅 波(鐘紡)

【準決勝】
崔根恒(培材)3…1 洪性祐(開城)
李順亨(專賣)3…2 權 勗(大學)

【決勝戰】
崔根恒(培材)3…1 李順亨(專賣)

甲子園中等野球

▲第三日(二回戰)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長野商業	0	0	1	0	0	0	3	0	0
山形中學	0	0	0	0	0	3	0	2	1

6…4

▲第四日(二回戰)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illegible]工業	0	1	0	0	0	0	0	0	0
北海中學	1	0	0	0	1	0	0	0	A

2A・1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青島中學	0	0	0	0	0	0	0	0	0
嘉義中學	4	0	7	0	0	0	0	1	A

12A・0

寫眞은 東京遠征中인 培材陸上軍

渡船이轉覆되여 乘客十四名溺死

增水中의 魯江上에大慘事

【新義州支局特電】 십사일오후 다섯시이십분경에 평북강계군 전천면장흥동(江界郡前川面長興洞)독로강(禿魯江)나루에서 때마침 전천장을보고 모혀든동민 이십명이 사공의 말리는것을 듯지안코 한목으로배를 타다가 중류에서 전복이되는바람에 전천면창덕동(倉德洞)강병국(姜炳國)의처김씨(三)와 가튼동리 리시흥(李時興)의처 김씨(三)와 박윤근(朴允根)(三)외 녀자열한명이 물에빠저죽고 이밧게열네명은 구조되엿다 강물이 엄미둘이상이나 부럿스므로 시체수사가 뜻대로되지안는다

天氣豫報

概況 支那內陸에 드리온 低氣壓은 大端히 弱해저서 今朝南京附近에 七五四粍을 示하고잇다 아직 新颱風은 沖繩附近에잇는데 中心은 七四八粍의 弱한것이다 高氣壓은 本邦東海上에 七六四粍을보이고 日本海로부터 朝鮮、滿洲로 퍼지고잇다 北滿은晴、南滿及西北朝鮮은 晴曇不定 其他는晴、流球諸島는雨、日本內地는晴。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 明日은 흐렷다개여다하다 京畿全區同一

昨日最高 三二度六
同 最低 二四度九
今朝最低 二三度七
今日正午 三〇度一

失家兒차저가오

십이일 부내창성정(昌成町)백륙십오번지 유창상점(攸昌商店) 아페서 오륙세가량되는 계집애가 방황하는것을 그집주인이 발견하고이래보호중이다 머리는단발 힌저고리에얼룩번치마를입고 머리에는 종기가잇스니 집차나시는분은그상점으로 무러주기바란다고한다

皇軍慰問用煙草 「가찌도끼」를發賣

황군(皇軍)위문용연초『가찌도끼』는일간소매점에서 팔기로되엿는데 의장도안(意匠圖案)은모두시국기분을 강조한것이라하며 이외에각종연초오십전이상어치를 사는사람에게는 오십전마다 전매국에서만든 위문주머니를지정하리라한다

喘息・神經痛과 中風・高血壓

天治아니다

血의「混濁」을업새고 原因부터治療하면낫는다

中風 으로不隨되어서 苦痛하는분 高血壓動脈硬化로 耳鳴頭痛肩凝動悸어지럼便秘不眠神經衰弱足冷等 血壓의危險잇는분 喘息 으로咳嗽、痰、숨가부고 呼吸困難、헐떡거림等으로苦生하는분 神經痛과류마치스로手足腰背과關節이압허서困難한분은

原因으로身體에물가르는貴重한血液이濁하야 循環이나뻐지고 神經이탈이난까닭입니다。故로 原因 을만드는 濁한血液을 淨化해서 動脈硬化의原因을除去하야 血壓을整調하고 血行을조케하야 神經의障害를除去하면 나으며 決코不治가아님을多數의實驗에依하야適確히한

(左研究中의今津博士)

鯛取粉으로有名한今津博士는 專門의醫學博士와協力해서強力한 淨血劑 를創製하고 그服用과リキシン又는イマヅミン의併用에依하야 낫기어려운엇가신病을 原因부터조케하야 大端히깃버하고잇습니다。一日이라도速히大阪市販急線三國驛前

今津研究所 로簡易치마시고 가시던遠方이면症狀을詳記하시와至急申込하시요 博士獨特의 淨血療法養生法其他注意事項을詳細懇切히가리킵니다

感謝의聲 血壓이놉고肩臂頭重耳鳴動悸肢痛도時時로옴으로不安한날을보내는中 突然腦溢血로넘어저左半身不隨 語訥하야 苦生하던次今津先生의 藥으로날마다나어저서지금은 조곰도 不自由업시活動하게되야感謝하고잇습니다 大阪市東成吉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業社 (電光一一五九)

第84回生徒募集 京城高等講習學院 (後期) ◎新學期開始(補缺募集)九月十日◎學則要三錢切手 ◎就職紹介◎官廳、銀行、會社、商店 ◎最近校舍新築大擴張(元廣大講習所) 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二六〇番)

京城 中等豫備導修學院 生徒募集 ◎新學期開始(補缺募集)九月十日晝夜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等學校入學受驗準備) 學則要三錢切手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二六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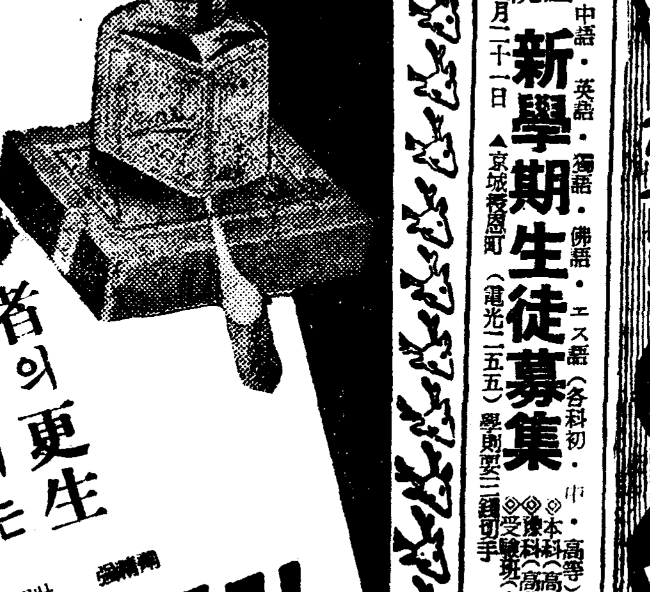
醬油調味料 昭和アミノサン醸造所 (營業案內書進呈) 釜山府佐川町三四四番地

小資本業 案內 三錢切手送하시면小資本大成功에滿한化粧品一切洗濯石鹼各種日用品을二十餘種自製할수잇는工業案內書를送呈 (原料商) 京城府長沙町一九 泰昌工業所

各鳥獸高價買入◎獵犬販賣◎ 東京市下谷區入谷町三九〇 東京名物諸料理山口屋直營 山口屋小動物園 京畿道龍仁郡內四面秋室里 山口屋小動物園分園

品質第一等 桃屋의桃의罐詰 生것보다맛잇는 白桃、黃桃 東京 桃屋商店 各食料品店에잇소

小型國産機의 最高權威 特許アクロ式 クボタ ディーゼル機關 株式會社久保田鐵工所製 (カタログ進呈) 合名會社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2)七八八二



虛弱者의更生에는 린크로판 直輸入內鮮總發賣元 京城鐘路 共生藥業株式會社 振替口座京城

外語部!! 京城外國語學院 中語・英語・獨語・佛語・エス語(各科初・中・高等) 新學期生徒募集 ◎本科(高等)一、二、三、四、五年程度 ◎豫科(高普一學年入學準備) ◎受驗班(大學專門受驗準備) ▲開學 八月二十一日 (電光二一五五) 學則要三錢切手

コドモのねびえかぜに オイン

軍手의製造 ◎年中無休……收入確實◎ ○收入確實하고確實한需要層을가진軍手編物의製造를勸합니다。 ○이일이야말로晝夜晴雨에不關코年中活動할수잇습니다。 ○器所의發明機는操作이單純하야素人에게도그날부터 ○就業希望의분은左記器所에照會次第說明書를送呈합니다 京城府黃金町五丁目 軍手專門 輸出問屋 朝日軍手京城支店 電話本局(2)六〇七一・振替京城二四三八〇番

新世界 理研清酒 凉風颯颯 한盞 忽然 新天地 大鮮釀造株式會社

昭和の常識

列强의陸軍制度는、日本과露西亞는徵兵、中華民國은傭兵、米國과英國은志願兵

兵器、爆擊機二〇萬圓、輕爆擊機、戰車各八萬圓、戰鬪機七萬圓、高射砲二萬圓、輕機關銃六五〇圓

健康을害치는것은 盛夏보다도오히려 殘暑에만코特히 惡疫이跳梁하는것도 일로부터입니다

卓上에 机上에 懷中에

仁丹

用意해주십시요

●卓上에仁丹을 備置하십시요 그리하야 應接前에는 雙方이 반드시 仁丹을 잡수서서 爽快한氣分과 口薰으로馥郁한 雰圍氣를 맛보십시요 口臭가치 不愉快한 느낌을 주는것은 업습니다 特히 炎暑의 季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또頭痛 眩暈等으로 不快한때는 仁丹數粒으로 곳시원한 氣分을滿喫하십시요

●机上에仁丹을 準備해두십시요、倦怠를느낄때、疲勞할때、頭腦의明晳을欠할때에仁丹은 最善의効果를 나타내여元氣를주어서 記憶力을 强化식힘니다

特히 여름에걸리기쉬운 消化不良과 食慾減退를防止하는대는 仁丹의服用으로서 그러한障碍와 症狀을容易히 除去식힐수잇습니다

●懷中에仁丹을 携帶하십시요 目下惡疫은 到處에跳梁하고 잇습니다。그豫防法으로서는、먼저 口腔을完全히 消毒殺菌하는것이 第一肝要합니다

또仁丹은 水傷、暑滯를 解消식혀 卽時에元氣를 充滿식히는 特効를 가지고 잇슴으로 外出中에도 絶對手中에 업시 할수업습니다

비타민B를가장豊富히가진 **銀粒仁丹**

家庭에 備置함에는 **德用甁入** 二千二百粒入一圓 이가장經濟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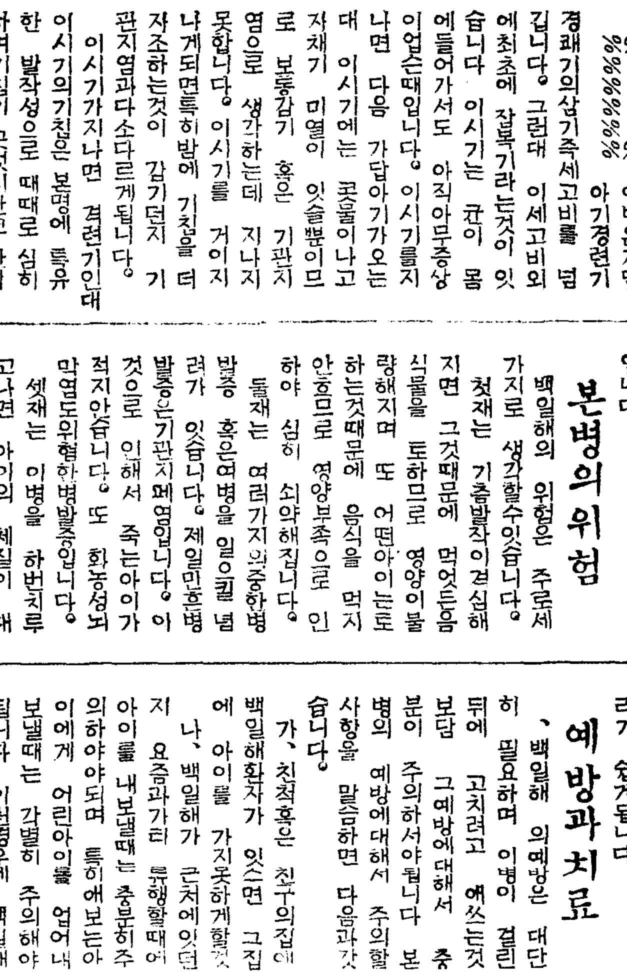
本舖 森下仁丹株式會社

우리차지

속근김치

어머니 이러케
속근 김치를 담으섯거
든
된장 찌깨를 좀만드시
요。
된장 찌개에 찍어서
밥에다,척척,걸처먹게
속근 김치를 먹으니
서울간 언니생각이 난
다。
『얘야 너무짜게 먹지
마라。
아버지께서 머리벗는
다고 그러시드라。』

(곰뜨사람 장용두)



家庭

요새도라다니는 "백일해"란기침병

걸리면제날짜안에는안낫는다 간호하는부모도피가마를지경

퍽오래끄는 애기들의병 ❷

京城府立醫院小兒科長 李聖鳳

이병은가답아기경련기 경쾌기의삼기즉세고비를 넘깁니다。그런데 이세고비의에최초에 잡복기라는것이 잇습니다 이시기는 균이 몸에들어가서도 아직아무증상이업는때입니다。이시기를지나면 다음 가답아기가오는대 이시기에는 콧물이나고 자채기 미열이 잇슬뿐이므로 보통감기 혹은 기관지염으로 생각하는데 지나지 못합니다。이시기를 거이지나게되면특히밤에 기침을 더 자조하는것이 감기던지 기관지염과다소다르게됩니다。

이시기가지나면 경련기인대 이시기의기침은 본병에 특유한 발작성으로 때때로 심히하며기침이 곳쳐지안코 한참 계속합니다。그리고 아이의 얼굴 입술이빨해지며 질식상태로됩니다。그러고 이기침발작이 지나가면 일종특유한 히!하는 피리소리를 내면서 숨을 길게드려쉬는데 숨이 금시에너머가는것가티 보입니다。이때 아이에 따라서 끈적끈적한담이 만히나옵니다。이기침이 더욱 심할때는 어떤아이는 음식물을 토하며 코피 혹은 눈에 출혈이생깁니다。이와가튼 기침발작이 심하면 하로에 백번의상하는 아이도 잇습니다。좌우간 지금말슴한 백일해기침을 한번들으면 그기침소리만 듯고라도 그 아이는 백일해라고 꼿 진단하리만치 특유한것입니다。그러므로 서양에서는 전화통아페서 기침을시켜 의사가 전화로 그기침소리를 듯고 진단을 부친다고합니다。이것으로보면 백일해의 기침이 얼마나 특유한지 잘 알수잇슬것입니다。

최후의 경쾌기는 경변성 기춤이 점점경해지는 시기입니다。

본병의위험

백일해의 위험은 주로세가지로 생각할수잇습니다。

첫재는 기춤발작이격심해지면 그것때문에 먹엇든음식물을 토하므로 영양이불량해지며 또 어떤아이는또하는것때문에 음식을 먹지안흐므로 영양부족으로 인하야 심히 쇠약해집니다。

둘재는 여러가지의중한병발증 혹은여병을 일으킬 념려가 잇습니다。제일만흔병발증은기관지폐염입니다。이것으로 인해서 죽는아이가 적지안습니다。또 화농성뇌막염도위험한병발증입니다。

셋재는 이병을 하번치루고나면 아이의 체질이 대단히 불량해저서 결핵에걸리기 쉽게됩니다

예방과치료

、백일해 의예방은 대단히 필요하며 이병이 걸린뒤에 고치려고 애쓰는것보담 그예방에대해서 충분이 주의하서야됩니다 본병의 예방에대해서 주의할사항을 말슴하면 다음과갓습니다。

가、친척혹은 친구의집에

나、백일해가 근처에잇던지 요즘과가티 류행할때에 에 아이를 가지못하게할것

백일해환자가 잇스면 그집아이를 내보낼때는 충분히주의하야야되며 특히에보는아이에게 어린아이를 업어내보낼때는 각별히 주의해야됩니다 이런경우에 백일해에 전염되엿다는말을 각금 드습니다

다、백일해가 류행할시에는 통학하는아이에대해서일정한 주의를하여야되며 이점에대해서는 학교 유치원에 아이를보내는 가정뿐아니라 학교당사자도 주의해야됩니다 우에도 말슴햇습니다만 실제에잇서 학교가튼데서 백일해의 전염을시킬기회가 만타고 볼수잇습니다。

마、한집안에서 백일해의 환자가 생기면 속히다른아이들과의 교통을차단해야될니다 이것은 말하기쉬우나 한집에서 교통차단은 어려운일이며 아모리주의해도무효되는때가 만흘것입니다 이런경우뿐아니라 백일해류행시기에백일해와진주사 즉예방주사를하는것이 비교적 효과잇습니다。

백일해의 치료는 대단히 끈난하며 신통한 약이아직 업습니다 그러타고 내버려두지말고 의사의 치료를바더 경하게경과하게 또 병발증이나 여병이 생기기안케 하서야됩니다 내종으로 예방에대해서 가별이 주의하시기를 거듭부탁해둡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지먹으면목소리가납버진다는말 그러나못먹는가지가잇스니주의

가지를 먹으면 목소리가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거짓말입니다。

옛날에 가지는 열대지방에그냥자라난 풀입니다。이풀은 애토로빈이라고하는 유독성분(有毒成分)을만히가지고 잇섯습니다 이것을 먹으리라고는생각도못하던것이 차차사람의지혜가 느러다고 오래동안 종자가개량이됨을 따라서 독잇는성분은업서지고 사람에게 리로운 물건이되여버리엿습니다。

그중거로는 아죽도 이러케종자개량이 못된『가지』가 잇지안습니까 그것은『중가지』라하야 울타리사이에 나는것이 잇습니다。이『중가지』속에는 약일퍼센트의『아로로빈』이 잇슴으로 절대로먹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보통가지는 벌서 종자개량이되여 독이업고 사람에게 유의한것이만흐며 더욱 해롭다는 곡지다음은 잘너버리므로조곰도 념려가업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던지 상관할것업시 마음노코먹는것이 조습니다。

자루달린양칼은 찬물에씨습시요

과일까거먹는 칼은 대개자루가 상아나 짐승의뼈로만든것이 만습니다。이러한 칼이나『홋』을쓰시고 씨슬때는반듯이 냉수로씻는것이조습니다 더러운물로씨스면 자루와칼날이 잘부러잇도록 하기위하야 밝려둔약이 떠러지며 그것이 약해저서 자루가잘빠집니다。

더욱히 잣끌른물로 씨스면 자루가 서희질이까닭에 그비치변하야 보기실허집니다。

短篇小說

찔레꽃 【101】

金末峰 作 金熊超 畵

영혼의시장(十二)

민수는 거의기계적으로 책상설합을열고 손에쥐엇든돈을 너흐면서도그는 당황히 근호의방을 몰너나온 자기의태도가 약간 어울리지안케 생각이되엿다

『무엇때문에 내가놀랏슬가?』

근호가 산액(酸液)에다 철편을 녹이고잇는것을보고 웨그러케까지 놀나지안으면 안될가

그가 우연히 정말로우연히 무슨 일상생활의필요로 혹은 무슨상품을 맨들고저 그보다도 그는 과학에대한 특별한흥미를가저서 산(酸)과 금속(金屬)에관하여 어떤 체계(體系)를 가진 결론을 어드려고 실험을 하고 잇섯는지도 몰른다

민수는 불에데인듯이 깜작놀라서 도라나온 자신의행동이 약간 경솔하다고 비난하고도십헛다 그러나……방금 푸ㅡ하고연기를이르키며 녹아들어가는 쇠쪼각을 드려다보고안젓는 근호의눈은?

그것은 방금포호(咆哮)하는한개의 맹수의눈이엇다 그보다도 그얼굴의 근육하나하나는 방금 숨이끈허저가는 사람의 그것에가티 보기실흔경련에 실룩거려고……아니 그보다도 자기를 향하여웃는 근호의얼굴은 그것은 우슴은아니엇다

우스려는 그의의지(意志)가임이강직되여버린 근육우에서 무참히도 패북하여버리는 기장과로운 한순간이 지나가슴이다

이런것들을 되푸리하며 생각하고 잇슬동안 민수의 머리속에는 커ㅡ다란 물안이 떠올으기 시작하엿다

『혹시……금괴파괴?라는 무서운범죄를 구성하고잇는거이아닐가?』

언젠가 근호는 술드먹지안코 자기에게 온란이란 기생에게실연을당한 이야기를 한일이 잇섯겟다

그리고 그옥란을 빼아서오는데는 오죽 돈이잇서야만 된다고 깁게한숨을 쉬든일이 생각어낫다

그러나 민수는 평일에 봄날가티 부드럽고 가을호수가티잔잔한 근호의성격을 생각해보자 지금 갑작이 자기맘속에이러난 의문의 제롬감을 그대로 시인하여 버릴수도업는것이다

좌우간 다시한번 근호의방으로가보리라고 결심한민수는 또한번 설합을열고 그리고 돈을 끄내서 손에쥐고 마루로나왓다

방에서 먼수가 나오는기척을 알엇든지

『리군!』

하고 근호의 불르는소리가 들려온다

『리군!좀드려오게나 거긋말을 먹고 약품을 사왓는데두 잘 안되네』

하고 문을열어제치는 근호를 도라보고

『그리지안어도 지금자네방으로 가는길일세 냄새가 고약해서 그문을 좀열어두게나』

하고 근호가 방안으로 드러섯다

『허허허 이것말인가? 이거다름아닐세 은행금고를 파괴하고 돈을좀 훔처내올가십허서 하하하하』

소리를내며 웃는다

『이까짓약품으로되나? 금고의 장울쇠가 도대체 엇던쇠로만들어젓는지 그것부터 먼저알어내야지』

민수도 빙그레우스며 천연스럽게 바다넘겻다

『하하하 굴세 그건 리군이좀 아라다주게나 그럼내 절반주지』

『하하하 장사괜찬군』

하고 두사람이 함께우슬때다

『게십니까요?』

하는 여자의목소리가 문박게서 들렷다

민수가 영창문을열고 내다보니 다람쥐빛지로만든 목도리를 한손에걸친 경애가 방그레우스며 서서잇다

『어떠케 이러케 오섯습니까』

하고 민수가 마루로 나오는것을보더니

『미안하게됏습니다 금고파괴할 의론들을 하시는것을 제가들어서 호호호』

간드러지게 우서보이고

『이왕이면 저도하목 끼워주신다면 그만한 심부름은 해드릴텐데요』

경애는 근호의 방을 향하여살작 눈웃음을치더니 민수를 향하여

『나가십시다 자동차 세워두엇스니깐요』

하고 근호가 방에서 본는것도 끄리지안코 그는 민수의방으로 드러가서 외투와모자를 가지고 나오더니 민수의뒤로가서 외투를 어깨에 걸처주는것이다

『나좀밧버서……』

민수는 빙그레우스며 외투를한팔로안엇다

『밥닷 밧부시단 말슴뿐이서요……그럼 어서 금고파괴할꾸론들이나 실컷하세요』

경애는 제법앵죽하여 빼도라서더니 대문을향하여 또박또박걸어간다

방에서 어이업시 내다보고안젓든 근호가 목소리를나추어

『여보게 갓티가주게 공연히룽담을가지고 참으로 알엇단는일안야? 그런말이 두쥐 영감쟁이 귀에드러간다면 그야말로 최업시 미역국일테니』

멍ㅡ하니섯든 민수는 기운들어든듯이 근호의 방문턱으로가서

『정말 롱담이엿지? 응?』

하고 근호의얼골을 드려다보앗다

『그럼 롱담이아니고 자네 미첫나?』

하고 근호는 민수의억개를 탁첫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밧부게 대문께로 나왓스나 경애는 어데로 살아젓는지 그림자도업다

큰길까지 쪽바로뚤린 긴골목을 그사이 경애가 날려가지는 안엇슬텐데……두리번 두리번하고 민수가 섯노라니 어데서 뛰어나왓는지 개트르우스며 경애가 달려드려 민수의 한팔을 끼엇다 팔랑갭이처럼 경솔하고 참새갓치 조잘거리는 경애를 맘속으로 경멸하면서도 민수는 오날도 어엽분 사슬에 매인강아지처럼 경애에게 끌려나가는 자신이 이상스러워젓다

BEAUTY SALON

夏のお洒落 問答

夏の美容室

여름은化粧하기어려운시절

그러나살결에손질을充分히하신다면어떠한化粧도마음대로됩니다

明朗한우데나粉白粉 正價・五五전 三五전

問 땀띄가나서 좀처럼낫지안코 살이 甚히칠어저서化粧이이뿌게잘안됩니다 어떠케솔질하면 땀띄가속히나흘까요?

ㅡ여름은 땀과 脂肪의分泌가 激烈한데다가 벗에께을기쉽고 살이거칠어지기쉽습니다 特히 땀띄는버려두면 좀처럼낫지안습니다 밤마다 주무시기前에 우데나 데루미노ㅡ루나 우데나콜도로 맛사ㅡ지를 하십시요 다하신뒤에 크림기를 잘닥거내고 우데나化粧水를 발르서서살결을收斂식힙니다。그뒤에 特殊한 作用이잇는 우데나가루白粉이나달검파우더ㅡ를발러두시면 땀띄도빨리낫고아름답고 健康한살결로 回復됩니다。또平常時 顔、入浴後는꼭우데나바니싱을……

問 海水浴에는가고십고、그러나볏께룸은겁나고해서、오도가도못합니다 볏께룸의完全한豫防法을가르켜주십시요

ㅡ甚한볏꺼름은 잘안낫습니다。海水浴에도 곡良質의榮養크림을 얼골과 목덜미、팔가튼대잘문질르서서 豫防해야합니다 이때에 決코粗惡한 크림을써서는안됩니다。도로혀심하게 살결을 거칠게해서 回復할수업게되니까요。우데나콜도나 데루미노ㅡ루면고만입니다。或洗顔專用의 크림을쓰시는 이가더러잇는대 이것은 絕對로조치못합니다 사정업시 살결을 거칠게하는原因이 되니까요。곡良質의 榮養크림이라하야 만됩니다。또 주무시기前에 곡 우데나콜도로 規則的으로 맛사ㅡ지를 하십시요。어것은 晝間에 疲勞된살결을 낫게하야 살이거칠어지는것을막기때문입니다 또 入浴、洗顔後는 우데나바니싱을잘 살결에문질러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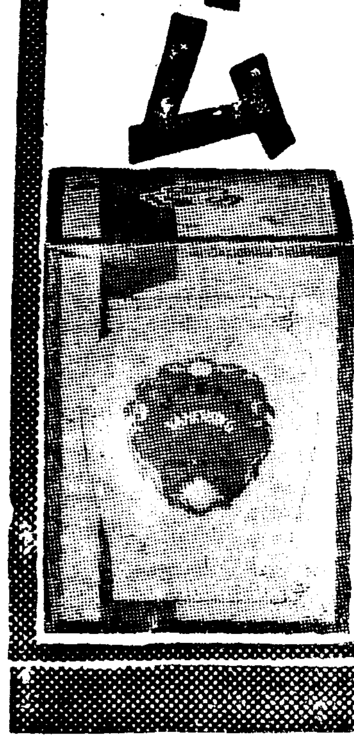
問 여름은 大概洋裝으로지냅니다 마는팔굼치와손과다리가흉해서 悲觀입니다。어떠케하면이뿌게될까요

ㅡ팔굼치와 손、다리가흉한것은 여름에는 정말큰일입니다 아모리 얼골이 이쁘게손질되엿서도 이가튼露出部分이 흉해보이면 더욱곤란합니다。손과다리를 이쁘게하는 대는혼이 原料用의오리ㅡ브가튼걸 발러두는 이가잇습니다마는 재미적습니다 이러한原始的인方法보다도 一定한科學的製法으로만든 조흔크림類를쓰시는 편이훨신效果的입니다 스폰즈 製의수갑가튼대 조흔榮養 크림인 우데나콜도나데 루미노ㅡ루를 뭇처서 充分히맛사ㅡ지하는것이第一입니다。맛사ㅡ지하는것은 거저발르는것과달러서 皮膚에活力을주고 行血이잘되게하므로흉한름살과 부슬부슬험해진살까저 消退식혀서훌륭히됩니

化粧이잘되고못되기는化粧下인크림의조코나쁨으로決定된다。우데나바니싱을꼭!

爽快한感觸……여름에快適한整肌料!

ウテナバニシングクリーム (雪印)



12.8—7.3

ウテナ粉白粉

우데나

學藝

現代에對한作家의魅力 ④

眞正한知識人의面貌
—個人的인特殊相에對하야—

安懷南

나처럼 恒常 所謂 身邊小說이라는 것을써온 사람은 한作家로서 現代에 對하야 느끼는 魅惑이뭐냐고할때 모른다고 對答할밧게는 업습니다。업다고하여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그것은 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내 自身 하나만을 가만히凝視하여왓고 其外의 아무것도 相關해보지 안흔까닭입니다。나의作品속에 아버님과어머님과 안해와아들 나의 여러家族들의 얼골과 마음이 담겨저 잇는것만 나는 滿足하여 왓든것입니다。

내自身에서 인저고만 離脫하야 社會에로 말하자면 身邊小說에서 이르는바의 客觀小說로 轉向하랴할때 나의가장큰 疑問은 내가 내自身을 理解하는것과 가티그러케잘 社會를 알수가잇느냐 하는것이엇습니다。勿論그러한 信念이 생기지 안헛스며 그러면 階級이니 農村이니 工場이니 社會이니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척 冊上우에서 空論만하는일은 거기에 勇氣도 나지안흘뿐더러 良心的인것도 못될것이라고 머뭇거렷습니다。結果는 다시나는 나의世界에서만 彷徨하게되엿고 제 딴에는 一層 기피하고 들어가기를 決心하며 스스로 矜持하는것을 勸勉하고 잇섯든것입니다 그것은 理論的으로 體驗에서 생겨진 身邊小說의 眞實感과 觀察에서 나오게되는 通俗性이라는 가장 重大하고 奧欲하며 또한困難하기도한 問題를 內包하고 나에게 當面하여 왓든것입니다。今春 本紙上에 發表되엿든 拙稿『本格小說論』이 그러한 나의作家的苦悶을 具體的으로 表明한글이엿섯스며 早晩間 나의힘으로든지 或은 다른어떠한 評論家의努力으로서든지 이問題가 完全히 解決이되는 날이면 나는 一層 充分한 信念과滿足으로서 前進할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決斷코 나의作家로서의 決斷이라고는 말하고 십지가 안습니다。그저 東쪽을 向하고 엇든사람이 어번에는 西便을對하고 돌아서는것과 恰似한일일것입니다。何如間 그러케만되면 作家的으로 갓는 나의 魅惑이 만케되리라는것 보담도 社會現象의 全部가 아닌가 합니다 設或한人間으로서 現代社會에 對하야 아무 興味를 느끼지 안는다치드라도 作家로서보면 現代人으로서 現代社會에 興味를 못느끼게되는것 그것도 亦是 하나의 魅惑으로 될수잇기도 할것입니다。

學藝部의 이設問에 忠實한對答을 하기위하야 나는 方今知識階級에 關하야 가장큰 魅惑을 느끼고잇다는것을 告白하겟습니다。그것은 나의 個人的인데 所屬하기도하고 또한 社會的인데 關聯하기도 하는것이여서 上示한 두편方向의 中間點으로 나의 態度로서는 當然 잇슴직한 일입니다。그것도 인테리겐차의 社會的地位라든지 歷史的任務라든지 또는 階級的分化라든지하는 거창한것보담 아직은 어떤 知識人의 個人的인 特殊한面貌에 對하여서라는 點이 더욱그러합니다。假令 날마다 맛나는 나의親舊들속에서도 그들이 무슨 社會的으로 進步的分子나 反動的分子이나 하는것은 次置하고 于先 眞正한知識人이냐 아니냐하는問題로서 分類되는것입니다。[illegible] 업는 低能兒들이 잇는反面에는 그知識에 잇서서 그品格과 心情에 잇서서 眞實로 魅惑的인 참다운知識人을 發見하게도 되는것입니다。

그는 자만히 觀察하면 自己의個性밧게는 世上에對하야 아무것도 자랑할것이 업습니다。그러나 그는 偉人이고 豪傑이고 柔道八段이고 누구든지 他人은 絶對로 尊敬하지 안는대신 自己自身 亦是조금도 尊敬하지 안흠으로 그것을 모릅니다。그는 徹底히 嘲笑하는속에서 모든것을 超脫하는것이며 現今社會的으로 보아 그의知性은 勿論 寄生虫的인데도 不拘하고 그의 情熱만은언제나 그야말로 純粹的인것갓습니다。어떠한 知識人을 그獨特한 本來대로 그性格대로 內在的으로 分析하는것처럼 어렵고 興味잇는일은 업습니다。그러고 그사람의 個人的立場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身邊小說이고 現代의 知識階級이라는 觀點에서 보면 客觀小說이 되는것으로 客觀小說의 人物 乃至身邊小說의 社會性이 證明되는일일것입니다。

何如間 自身의主觀的일이든 社會의客觀的일이든 作家가 그것을 眞實로 理解하게되는것은 作品以前의 일이아니라 以後의일이 아닌가합니다。한作品을 生産해 노흔 뒤에야 비로소 무어든지 該對象을 完全히 目睹하고 잘알고 또 充分히 魅惑을 느끼게되는것 어리라고생각합니다。

漢詩

題 芳草　押 生　桐岡考選

三等之五　桂洞町八五　金夢賚

日暖風微雨乍晴
茸茸草色滿蹊生
近看綠髮如絲亂
遙望靑羅似帶橫
芟作香芻兒養犢
坐爲文席客聽鶯
拈來忽覺幼時戲
笑喚稚孫勝負爭

鍊金機

『鼠火』新刊評

李源朝

李箕永氏의 中篇集『鼠火』가 『賭博』『人情』『產母』 三篇과함께 收錄되여서 刊行되엿다。

이作品은 일즉이 本報에 連載되엿슬때로 散讀한일이 잇섯지마는 이번에 完篇으로 읽게되는 機會를 가지는 同時에 또한 作者는 卷頭의 序文에서 이作品에對한 作者의 意圖랏다던지 또는 이作品이 가지는 年代的系譜가튼것을 照詳히 적은바 잇서서 이作品을 읽고 理解하는데 여간 도음이되지 안헛다。

그런데 作者의 序文에依하면 이作品은 己未年前後의 農村을 그린것이라고하는데 붓그러운 말이지마는 筆者自身이 원체 農村事情에 밝지못함으로 이作品에 特別히 한개의 에포크的特徵이 어데잇다는것은 따로 發見하지못하엿다。다만 이作品을 다읽고나서 이作品의 全體的空氣가 이作品의 제일 곳場面에 한목에 要約되고 象徵되여다는것을 께다럿다。

그場面이란 바로 정월、첫봄이래도 아직 겨울 취위가 남어잇는 느진밤、未久에 닥처올 새벽을 바라보면서 두主人公은 것고잇다。날근秩序가 기우러지면서 부닥처오는 貧窮과 그대로 남어잇는 因襲은 마치季節의餘寒과도 가티다。그러나 어느로선지 닥처올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돌쇠라는 主人公을 通해서 꿋까지살고 잇다。다만 그方向을 모를 뿐이다。

傾向이 濃厚하엿슬때이다。이러한 雰圍氣속에서 이러한 테ー마의 作品을 쓰면서도 作者는 호듭갑스럽게 스토리의奇譎함을 피하거나 虛飾하게 主人公의 英雄化에 熱中하지안코 場面마다 現實的인 레아리티를 가장 典型的으로 撫揣하면서 그우에 돌쇠라는 人物이 浮彫와가티 縱橫으로 活動하면서도 作[illegible] 貧窮에 [illegible] 爲的 [illegible] 인해피엔드에 汲汲하지아니한것은 果然大家의 手法이엿보인다。

萬一 이作者더러 深刻한 惡意의 蔑斂이나 華奢한 都會의 消費面을 그리라고한다면 꼭 能할는지모르겟스나 純眞하고 質朴한 農村生活을 그리는데잇서는 作者의 悠悠不迫한 呼吸과 重厚한 筆致가 서로 어울려서 한개의 調和를 이루어 그雰圍氣를 나타내는데는 아마 이作者로하여금 우리文壇의 第一人者라고 하지아니할수업슬것이다。

그리고 끗흐로 이作者에게 매양 尊敬의念을 가지게하는것은 主人公에 對한 作者의 人生態度이다。이態度는『鼠火』에서도 그러코『產母』에서도 또다른 短篇에서도 늘보이는 特徵이지마는 主人公이 아무리 貧窮에 쪼들니고 또는 그貧窮으로 말미아마 罪를짓는 境遇에도 그罪惡의 벌네는 決코 主人公의 心臟까지 파먹지못하게스리 主人公을 항상 擁護하는『휴ー마니티』를 항상 擁護하는 人生態度그것이다。이 德敏의 念으로서 나는 敢히 이 作品을 一般 讀者에게 薦하는바이다。(定價 七十錢 發行所 市內寬勳町一一二 東光堂書店、振替口座京城一六一一二番)

× × ×

漢拏山登攀記

酒泉石、漫山帳
—琉球世子의원통한죽엄—

⑮ 李殷相

車中의 坐睡! 아직 무르녹기도 前에 車는 翰林里에 와닷는다 이 翰林港은 島中의 良港으로 漁船의 往來가 어디보다도 頻繁한 곳이다。그러므로 『간즈메』工場이며 其他 魚商의 奔走한것이 顯著하다。築港파게까지 나와 漁網손보는 漁人사이에 섯노라니、그겨테 문득 異樣의 漁船一隻이엇고、거기 三四人의『유까다』입은 船人들이 잇다。

이곳사람들이 이르는말『琉球人』이라한다。나는 거이 놀란듯 그들아프로 닥아섯다。그리고 東洋三國語를 작난삼아 한마디씩 부처보나、그들은『사카나、사카나』하고 웃기만한다。아마『저이는 漁夫로라』하는뜻인듯하다。

濟州島란것이 近海上에서는 가장 큰섬인만콤、自古로 船舶의 來往、또는漂到가 만핫슬것은 推測하기에 어려울것이 업다。

記錄에 빠진것이 記錄에 잇는것보다 數倍할것은 定한理致려니와、記錄에 依據하야서만도『구두』신은사람의배『게다』신은 사람의배들이 이르렀든것이 一一히 數할수가 업는中에 特히 濟州島民과 琉球人과의 交涉은 한層더 異彩잇는 記錄이 되어 잇슴을보앗다。

正廟庚戌(西紀一七九〇)에는 琉球國 那覇府사람이 簧日浦에 漂着하엿는데 船中에 論語、小學、中庸、三國誌、百箇聯等이 잇더라는것、純廟己巳(西紀一八〇九)에는 琉球國巡見官 翁世爆과、史官 毛世康 毛維僥等이 牛島前洋에 漂到하엿는데 巡見官은 머리에金簪를 꼬젓고 그비녀짜지는 菊花모양이엇스며 그우에 紫綾冠을썻고、허리에는 黃綬으로만든 큰띄를 매고서 紅靴를 신엇스며 史官들은 銀비녀를꼬젓고 黃綾冠을썻는데 紺色두루막이에 소매는 크더라는것等 재미나는 記錄이잇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서 琉球人을 對하야 琉球人漂着의 故事를 생각하는以上、무엇보다도 悲慘한 史話가 잇슴을 어저버리지 못하는것은 琉球國世子의 橫死다。

지금으로부터 三百餘年前仁祖때에 日本이 琉球를치고 그王을사로잡아간일이 잇섯다。그때에 琉球國世子가 國寶를 배에실고 父王을 救贖하려떠낫다 그러나 不幸하야 배가 이곳濟州島에 漂到하자 牧師某氏가 舟中에잇는 寶物이 무엇인지를 물엇다。

世子ㅣ『酒泉石이란것과 漫山帳이란것이 잇는데 酒泉石이란것은 네모난 돌한덩이로서 가운데가 凹字形으로 패엿는데、거기 물을부어두면 저절로 맛잇는 술이되어나옵니다。그리고 漫山帳이란것은 거미줄에 藥물을드려 짜내인것인데 한間짜리를 [illegible]하고、萬一 큰 [illegible]것이면 비록山이라도 덥게 됩니다』하고 自誇하엿다。牧使ㅣ그 말을듯고 貪내어 請하엿더니 世子ㅣ 拒絶하며 [illegible] 우리父王을 救贖코저 가지고가는[illegible] 이라 드릴수가 업습니다』하고말하엿다、牧使ㅣ 크게 怒하야 軍兵을보내어 世子를 사로잡으니、世子ㅣ 뜻을맛지어루고 風浪에 漂流한것도 不幸한데 또그우에 自己몸마저 사로잡히게됨이 어떠케나 분하엿든지 酒泉石을 바다속에 던저버리고 말앗다。牧使ㅣ 또한제대로괘씸히여겨 舟中에잇는 다른물건을 全部 沒收하고 世子를 죽여버리엇는데 世子ㅣ 죽을때 [illegible] 請하야 거기 一律을 [illegible]

堯語難明桀服身
臨刑何暇訴蒼旻
三良殉穴人誰贖
二子乘舟賊不仁
骨暴沙場有草纏
魂歸故國吊無親
竹西樓下滔滔水
遺恨分明咽萬春

이라하엿다。

얼마나 슬픈일이냐。얼마나 슬픈노래냐。그러나 그보다도 지금 내압헤 서잇는 저이世子ㅣ 이船人들의 넷날의 그가티 원통하게도죽은 史實이 잇슴은 알지못하고 『사카나』만찻으러 다니는것을 생각하면 더한층 슬픈일이아닐까보냐。

나는 兩三章의 노래를 지어 琉球世子의 怨魂을 慰勞하고 우리牧使의 殘忍한 罪惡을 代謝하고저한다。

우리님 救贖하올
酒泉石 漫山帳을
물속에 버릴만정
남손에야 준다하리
世子야 사나이로다
그럴일이지 그럴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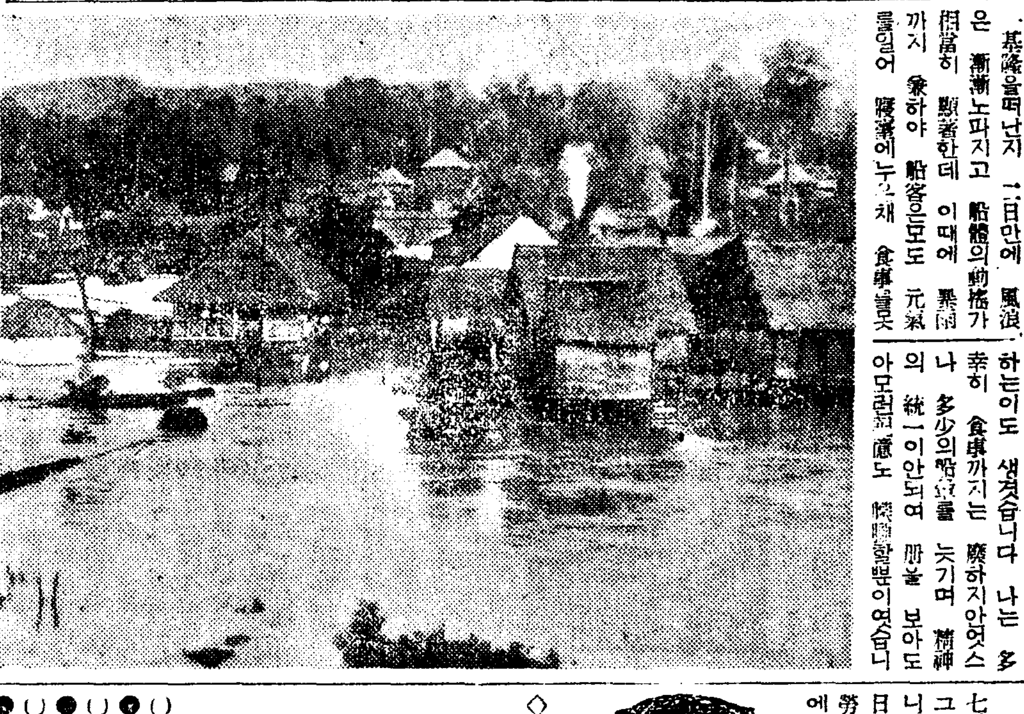
風波에 밀린몸이
罪업시 죽는날에
他國에 죽는몸이
넘조차 못救하니
슬프다 네魂은정녕
故國으로 갓스리라。

검둥이 琉球아이
옛일은 모르고서
『사카나 사카나』하고
웃기만 하는고나
내노래 돗고돌아가
世子魂앞에 드리어라。

(사진은 翰林築港)

南洋行
『東洋農村衛生會議』에가면서 (五)

李永春



基隆을떠난지 二日만에 風浪은 漸漸노파지고 船體의動搖가 相當히 顯著한데 이때에 暴雨까지 兼하야 船客은모도 元氣를일어 寢臺에누어 食事를 못하는이도 생겻습니다 나는 多幸히 食事까지는 廢하지안엇스나 多少의 船暈을 늣기며 精神의 統一이 안되여 冊을 보아도 아모런 趣意도 [illegible]할뿐이엿습니다 風雨가잇서 氣溫은 덥지안코 오히려 淸凉한氣分이엿습니다『데기』에 天幕을치고 잇는 者에게는 각금 暴雨의侵襲이 잇슴으로 濕氣가만허 病者의 發生을 念慮하엿더니 二三日後부터 感冒患者 脚氣患者들이 船醫室에서 각금보엿습니다 暴風雨滿二日을 지나니 天氣가 快淸하야 모든 船客의氣分은 愛嬌에서 回生하엿습니다 蒼海上 이곳저곳에서 보이는 것은 검은巨魚(鱷)가 群의 날뛰는 光景 적은飛魚群이 지여 船體갓가이에서 蜻蛉과 가티 三四十米突의 水上을 날어가는光景 이러한 魚族의曲藝!를보는것은 航行者의 큰娛樂이라고도하겟습니다 十六日아침배는 比律賓群島南方海峽에들어섯습니다 正午頃에 世界的으로 有名한 七千 癩病者의 收容島 『큐리온』(Culion Island)島를 갓가히 지나면서 이人類의敵 不治의 病에 呻吟하는 아까운 生命이 이나라에서도 한가지隔離되여 [illegible] 道理가 업는 이微弱한 人力 幼稚한 醫學에 對하야 나오는 歎聲을 禁할수가업섯습니다 熱帶의 暑氣라고는조금도 차즐수업는 淸快한海風이 불어올때나는甲板우에서 人力이人及하는여러가지 疾病 宇宙神秘의 이것 저것을 生覺하면서 時時로 興奮되엿슴니다。十七日朝飯이지난後 나는처음으로 이汽船運轉의中樞인 汽罐室을 求景하고 機械에對하여는 全然門外漢인나로서는 其裝置의巨大와 精巧함을 驚嘆하엿는데 機械 運轉의 仔細한 說明으로 그만한 機關의性能으로 이만한 船體를運轉한다는 [illegible]을어엇습니다 오늘은아침부터 氣分이 爽快하야 終日南洋에關한여러가지書籍을讀하면서 獨自의想像을 하여보기도하엿습니다 저녁어무한後 甲板우에서 船長이가르치는 正南方位에잇는『사우단크로쓰』(Southern Cross)의 四星을밝혀보니 별서 地球의南쪽에 왓다는것을 절실하게 되엿습니다 오늘밤사이에 比律賓의 諸群小島를 完全히지나고 十八日正午까지 無際의大海이드니 正午를넘어서자 英領『보루네오』에 屬하는 數小島가 뵈이고 멀니 本島가 희미하게 보이기始作하엿습니다 적은섬에 갓가워지매 이는 珊瑚島이니 島上에 茂盛한椰子나무가 景致조케 整列하여잇습니다 地理冊에서본그림 각금繪畵上에서만 보든 그림 異常하고神奇합니다 해는저물어 稀薄한半月色에 遼遠海上의 濃厚한구름만이 겨우보이드니 데서 번쩍이는한個의紅色燈臺가 發見되엿습니다 어우고그 南方에 서멀지안은곳에 大小點點의燈光이빗치니 이는即 寄港하는 英領『보루네오』의 『다와우』(Tawau)港입니다 『다와우』港에 到着하기는 七月十八日午後十時頃 夜深하야 그대로海上에서 一泊하게되엿습니다 寄港出發以後 七日間에 數日동안 暴風雨의洗禮로 多少疲勞를늣긴 船客一同은 碇泊한 船室에서 從容한 一夜를 마시하야 充分한休養을 엇게되엿습니다。氣溫도七十度內外임으로 매우爽快하엿섯습니다。

翌朝에 船窓을나오니 前夜에는 暗黑하야 市街樣像이不明하엿스나 淸快한早朝 旭日에비취는東南港 生前에처음보는 別天地엿습니다。茂盛한海岸의 椰子나무와아울러 그림자빗치는기름가튼海上의熱帶 特有의樓閣形住屋 數個의倉庫等 色彩濃厚한靑紅의집웅等이 異常스러웟고 汽船과港棧橋間에서 巨魚가悠悠出沒하야 그림가튼海面에 波浪을 이르키는것도 漁港이라는것을直覺的으로알게되는것이엿습니다。

이港口는 人口約一萬밧게안되는小港으로 아직築港設備도업고 汽船도英船이 新嘉坡에서 一週一回寄港하고 其外에는 和蘭船이 間或入港하고 日本南洋海運船이 近來에月四回式 寄港하는것뿐입니다。그러나 本島東海岸唯一의港口로 將來의發展이 期待되는 重要한곳이라 하겟습니다。日本內地人은 六百名內外로 勢力이 斷然優勢하야 英國人은 이곳을 別稱日本村이라합니다 이곳에 日本産業會社護謨園이 大規模요 其外에 個人으로서 椰子、大麻의 栽培를 하는 [illegible]이 이곳서부터 北方約六海里許『사밀』小島에『보루네오』水產會社가 亦是大規模의 捕魚罐詰製造를합니다 其從業員의 大部分은 中國人 瓜哇人 土民等입니다

라디오

十六日(月曜)

◇午後六時卅分 노래공부(二) 一、해빗은쟁쟁 二、참대배 外賓演兒童 朴景嬉
◇同六時五十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夏期라듸오大學 經濟篇 徐椿
◇同八時 趣味講演『春香傳모릴 이야기』 金日中
◇同八時二〇分 一、[illegible]歌 二、[illegible]
◇同九時 [illegible] 夢金浦打鈴 三、山念佛 四、[illegible] 五、朴淵瀑布 六、[illegible] 大笒 金永根 金玉仙 [illegible] 二、春眠曲 朴[illegible] 大笒 金玉順 伽倻琴 金永根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後八時五〇分(大) 野球
◇午後六時(漢) 天然記念物
◇同六時三〇分(東) 夏休雙六
◇同七時三〇分(城) 農山漁村
◇同八時(靜) 俚謠
◇同八時一五分(東) 바이오링
◇同八時四〇分(東) 歌謠曲
◇同九時(東) 講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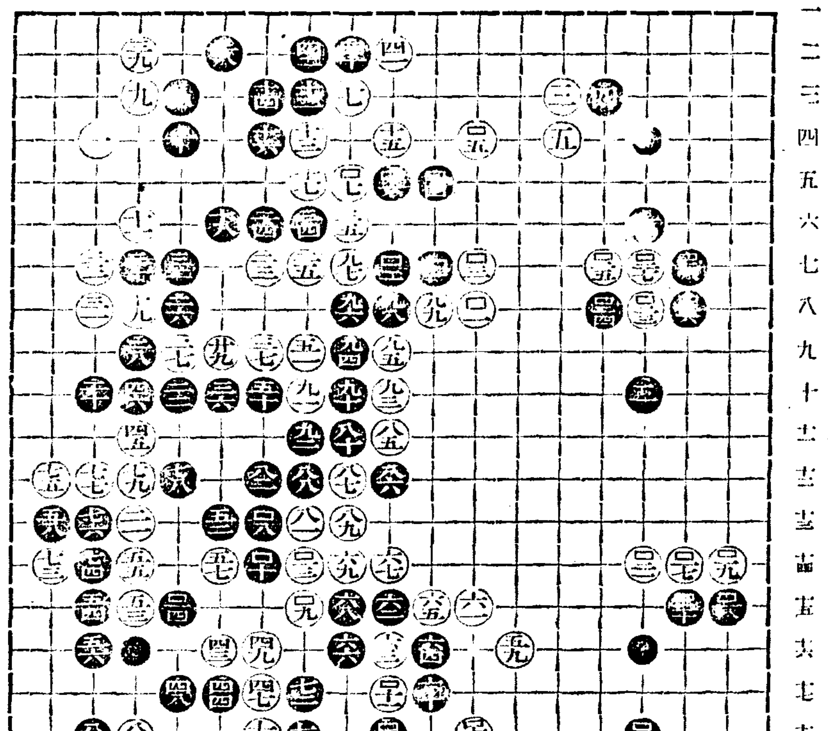
十七日(火曜)

◇午前一一時一五分 復習時間 算術(七) 安興年
◇午後〇時五分 古談 囹속에가천배암 金瀛雲
◇同六時三〇分 노래공부(三) 一、해빗은쟁쟁 二、참대배 外賓演兒童 朴景嬉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夏期라디오大學『法律篇』婚姻問題에對하야 尹元上
◇同八時(平)講演『北支戰線을보고서』 陸軍步兵少佐 白洪錫
◇同八時三〇分 一、花草四巨里 二、六字백이 三、흥打鈴四、개고리打鈴 高飛鳥 高桂仙
◇同九時 獨唱 一、녀가는길……헨델作曲 二、打作노래……자데로作曲 三、歌劇『미논』中에서……토마作曲 作別의노래 四、빼리꼬어의노래……愛蘭民謠 五、아마릴리……카치니作曲 六、歌劇『돈죠반니』中에서……모ー차르트作曲 어서가자 七、춤노래……롯시니作曲 安基永 피아노伴奏 金信福

圍棋對局譜 (8)

本社主催

白 廣瀨仲子
黑三段 崔亨烈



○(一二三) 丑의十四
●(一二四) 辰의十五
○(一二五) 辛의十八
●(一二六) 丑의十九
○(一二七) 丙의十四
●(一二八) 乙의十五
○(一二九) 乙의十四
●(一三〇) 丙의十五
○(一三一) 丁의十四
●(一三二) 丁의十八
○(一三三) 丁의八
●(一三四) 戊의八
○(一三五) 戊의七
●(一三六) 丙의八
○(一三七) 丁의七
●(一三八) 丙의七

觀戰記

白이 巳午十二三區를 反攻獲失한후 辛의十八로 黑을 一射하고 丙의十四 丁의六로 黑兩竊을 分裂하야 圍幅을 獨點코저하니 來頭奇變預先難測이로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二十)

漢先手 李在鳳
楚 許鏞

◀百十手圖▶

◀百二十手圖▶

壬四車―壬三
辛六[illegible]―庚六
庚四象―壬七
己二[illegible]―己三
壬二車―壬三
庚六[illegible]―庚六
丁九士―丁八
己一[illegible]―丁三
壬四車―丙四
丁三[illegible]―己二

夏와食傷의注意

不斷의用意에 이良劑잇다!

新鮮해야할 魚菜를 攝取해도 消化力이弱해진胃腸內에는 그대로 長時間 停滯해서 腐敗하는일이잇습니다。또 腐敗한것을 不注意해서 먹은까닭에 목숨을버린例도 적지안치안습니까 여름에흔한 食傷의原因의大割乃至九割까지는 腐敗한것 不消化한것을 攝取한結果입니다。新鮮과 腐敗의鑑別은注意하면 判別되지마는 胃腸內의腐敗는 아무리해도손을 델수가업지안습니까。故로 平素부터 健胃固腸丸을 常備하고、조금어려도 胃腸이弱한분은 特히 健康한胃腸으로 恢復식혀두어야 이危急에서 完全히 버서날수가잇습니다。그救急的效果는 健胃固腸丸이 今日의聲價를 持續하는所以입니다 夏節의 胃腸障碍特히 만흔食傷에 備하서 各家庭에 常備해두시기를 勸奬하옵니다

幼兒用으로서 小兒固腸丸、旅行포켓트用으로서 健胃固腸錠도잇습니다。最寄의藥店에서 사주십시요

◉谷回春堂製에注意

真瓜 참외 — 잘익지안은 참외에는 靑酸이라는 猛毒을 含有해잇습니다 特히 애기네의게는 充分注意하십이必要합니다。

ばなな 바나나 — 바나나는 榮養價가 만흔것이지마는 夏季는特히 腐敗하기쉬웁고 疫痢의 誘因도됨으로 幼兒에는 絶對로주지안는것이安全하며 新鮮한것이면小量이適當합니다

たこ 문어 — 여름의 人氣物 문어는 腐敗하기쉬운것임으로弱해진胃腸으로는 消化가 도로혀 困難합니다 그우에 腐敗해잇스면 큰일납니다 注意해주십시요

天ぷら 텐뿌라 — 텐뿌라는 脂肪이 만흠으로 腸內에서 腐敗하기쉬웁니다 特히 夏季에는 材料이새우 或은 조개類의 오래된것을 먹는것은 危險합니다

玉子やき 계란부침 — 변도반찬으로 便利하지만 [illegible] 腐敗하기 [illegible]

アイスクリーム 아이스크림 — 어름이나 아이스크림은 더운때腸을 차게함으로 여러가지 障碍가일여납니다 特히 아이스크림 腐敗한것은 危險합니다。

さくらんぼ 앵도 — 앵도는 그껍질이 不消化物이기때문에 疫痢의 誘因이되기쉽습니다 잘 씹어 삼킬수실時는 幼兒의게만히주는것은 失敗의 因입니다

えび 새우 — 생생한새우도 半熟은 絶對禁物特히 時間이 지난것을 먹으면 큰일입니다 게나 문어와 마찬가지로 [illegible] 充分히 注意하지안흐면 안됩니다

健胃固腸丸 (건위고장환)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合資會社 谷回春堂

農本安城의昨今

天惠의農業地帶로 鍮器類의元産地
京南鐵道開通되자急速發展
商業都市化하는安城

安城은 京畿道의 大郡으로北에는開城 南에는安城이라하야一時는 水原보다도 오히려 繁昌한때도잇섯고 非山非野로 農業에도 여러가지 天惠의 好條件이具備하야 當邑의名産地로서安城맛침이란말까지 생겨난곳이엿다 그러나 大都市 京城과 距離가 넘우 接近하엿기때문에도리여 그發展의 速度가 鈍한듯김이업지아니하엿섯스나 마침京南鐵道가 開通됨을따라서 安城도 舊態를벗고 急速度로 商業都市化하야가는中에잇다

沿……革

安城郡은 高句麗時代에 奈兮忽이라稱하고 新羅 景德王朝에白城郡이라稱하고 高麗初에 安城縣이라稱하고 顯宗朝에 水原에 移屬하엿다가 其後에 天安府에 移屬되엿고 明宗朝에 監務를置하얏다가 恭愍王朝에 郡으로 昇格하고 水原의 陽良、甘彌呑、馬田、新谷의 四部曲을 付하얏다가 其後에 馬田、新谷은 水原으로 還屬되고 李朝에至하야 舊名을仍用하야 安城郡으로하고 其後에 陽良은 陽智縣에 割與되고 太宗十三年에忠淸道로부터 本道에 移屬되고大正三年三月 朝鮮總督府令으로郡廢合을 實施할時에 陽城郡의陽城、元谷、孔道의 三面과 竹山郡의 一竹、二竹、三竹의 三面을 安城郡에 合倂하엿다

地……勢

位置는 京畿道最南端에 在하니 東은 一竹面 北山里(利川界) 西는 元谷面竹栢里(振威界) 南은 瑞雲面青龍里(忠北鎭川界) 北은 陽城面美山里(龍仁界)인데 東西는 十一里、南北은 五里이다 總面積은 三十五方里인데 耕作地는 田 六千八百八十九町步 畓一萬二千十七町步이고 地質은 肥沃하며 山岳은三萬一千九百二十五町步이나 擧皆童濯의感이잇더니 輓近에沙防工事와 殖林獎勵로因하야 樹木이漸次鬱蒼하다

戶……口

戶數는 一萬五千八百二十七戶이요 人口는八萬六千三百十一人이다

敎……育

公立普通學校十二 簡易學校四 收容兒童이四千五百十八名、私立普通學校二에 收容兒童이 五百九十四名、尋常小學校一에 收容兒童六十一名、私立幼稚園一에 收容兒童이 四十三名이다。尙今中等程度學校가 업스므로 遺憾이더니 邑內에 篤志家 朴弼秉氏가 甲種實業學校를 創立하기爲하야 三萬圓을 提供하므로 此를 基礎삼아 不遠한 將來에 實現될것이다。

產……業

農業住民은 農産을 主業으로삼는데 總地積과 總戶數를 比較配當하면 一戶當 田約五段五畝、畓約九反四畝이다 米麥은昭和十一年中에 旱水害等으로 因하야 大減收되여 米가 僅十三萬四千五百六十二石 麥이 僅三萬四千七百十八石이엿스나 今年은 雨順風調하야 爲先 麥作은 昨年보다 三割以上 增收되엿고 移秧도 全部順調로되엿다 土地는 郡內地主가 多數이고 管外地主가 少數인데 郡內地主로서는 小作農에 對하야 救濟又는 保護에 努力함으로 小作爭議事件은 僅少하고 管外地主管理者도 또한 時勢에 應하야 極히 注意한다

棉作 昭和十一年度에는作付面積約一千七百町步에 收穫이 百六十七萬斤이엿는데 今年에는 一千九百餘町步를 作付하얏슴으로 今秋收穫은 二百萬餘斤을 豫想할수잇다 將來地方工業의 一資料가되야 發展上 可能性이 豐富하다

養蠶 桑田面積이 約二百九十八町步에 掃立數는 春蠶一萬六千六百瓦、秋蠶一萬五千瓦인데 次第로 增産計畫이다

畜産 農牛六千四百十五頭 豚四千九百三十五頭인데 自給肥料를 獎勵하기爲하야 畜牛를 增殖하고 又는 養豚組合까지 設置 增殖에 努力한다

副業 叺繩生産은 年約九十四萬三千枚이나 逐年增加되고 造紙는 寶蓋面에 在來로 休紙를 利用製造하엿는데 挽近에는 桑皮、藥草、棉桿等을利用하야 事業의 前途가 一層有望하다

商業 市街의 工業으로는 鍮器、煙管、皮鞋、笠子、網巾等의製造가 精美하야 全朝鮮에 著名함으로 (安城맛침)이라는 名詞가 잇더니 近來에 時移事變하야 鞋笠巾은 全廢되고 煙管業은 衰退하얏스나 十三道及 滿洲等地에 輸出되고 鍮器는大擴張되야 事業이 飛躍的發展中에잇다 金融機關으로는 東一銀行支店一、金融組合二、同支店一、會社로는安城酒造、安城鍮器製造、東南印刷所、城南電氣、不二産業、振安自動車、京畿運送、安城商會、廣財鑛業、東光興業、大東百貨店、孔道産業等인데 在來로商權은 元住民이掌握하고잇는것이 特色이다 다음으로 安城市場에 著名한商店을紹介하면

布木商 李有成商店 金井鎬商店 崔聖弼商店 太陽商會 合成商會 京南商會 元行商會 三星商會 宋應泰商店 金昌洙商店 李鳳大商店

百貨店 大東百貨店 正屋百貨店 鄭華永商店 德永百貨店 阪井百貨店 實圭鎬商店等이다

名勝古蹟

飛鳳山 은郡治의 主山으로 山上에 古城址가 尙存하고 (年代未詳) 巖石이잇스니 古來로傳하기를 將軍岩이라하야 春秋에都市人士와 騷人墨客의玩賞에供한다

青龍寺 瑞雲面瑞雲山에在하니 距今六百六十餘年前 高麗元宗時에 明本國師의 開山하엿다 洞口에水石이奇異하고 樹木이鬱蒼하며 最上峰에 藥泉이湧出하야 遠近病人의 療養所로著名하고 泉下에恩寂庵이有하더니 年前에 回祿에付하엿스나 其舊址에數間所의 庵子가 新築되엿다

七寶寺 二竹面七長山에在하니 距今九百餘年前에 慧照國師의 開山한것인데 國師가七賊人을건저七賢人을내인故로 寺名을七賢寺라한다

宋將軍城 二竹面白巖山頂에在하니 高麗顯宗時에宋文胄將軍이 築한城이라 將軍의 雄略이何如하야 祖兄의 禮를不辱한다

舞鶴城 陽城面高城山頂에 在하니 遺傳하기를百濟時에女將軍舞鶴의所築이라하는데 今에頹廢되고 城址內에雲水庵이創建되엿스나 其年代는未詳이다

左右城 瑞雲山南北峯에分在하니 壬辰亂時에 洪季男將軍은 右城을築하고 李德南將軍은 左城을築하야 互相呼應하든處인데 兩將軍의碑가 尙今屹立하엿다

克敵樓 距今五百六十餘年前 高麗末에 紅賊이猖獗함을當하야 特히安城人이不服하고 賊黨을斬하엿슴으로此樓를 建設記念하얏더니 其後頹廢되엿다

各界의 重鎭들

安城社會의恩人 蕙石居士 朴弼秉氏

氏는素質이 溫雅하고 經濟方面에도 밝거니와 社會事業에도 率先出力한다 그래서 財閥로나信望으로나 本地方第一流이다 十個年間道會議員으로 選任되엿고 電氣運輸酒造三會社長이다 (外他公職은 枚擧不能함으로省略) 그리고 一切小作人에 對하야恒常厚意를 表하고 歲末窮民救濟가 多大함으로 慈惠碑가處處에 在하니 安城社會에 對하야 慈父이라할가 社會施設에 對하야 幾千圓幾百圓의 捐助는姑捨하고 道立醫院에 一萬圓을 筆頭로 今般中等程度學校創設을 爲하야 爲先三萬圓을 自進出捐하얏스니 安城社會의 恩人이요 活佛이다 (寫眞은 朴弼秉氏)

感服할慈善家 穀物商組合長 兪鎭英氏

氏는本是財産의 餘裕가업시 僅히生活하지마는 仁慈한天性으로貧窮한貧族의 極力救助라던지 救濟이라던지 兼하야 各社會機關에도自家經濟에 過度한 寄附도잇섯다 此에對하야 누가感歎치아니하랴 그런데 嗣子兪日濬博士가不歸의 客이된以後로 一切公私職任을 辭絶하고 閉門靜養하면서 孫兒敎育에만 努力하고잇다 現在組合長은 穀物界衆望에 견듸기못하야不得已承諾한것이다 (寫眞은兪鎭英氏)

教育界의恩人 安青學校長 金台榮氏

氏는京畿道出生으로 일즉이京城醫學校를 苦學으로卒業하고 距今十九年前에 安城邑에移住하야 社會에獻身할決心으로長久한歲月에許多한艱苦를맛보면서도 奮鬪努力勇往邁進한結果 現今에는安城社會各方面에氏의關係하지안는것이 殆히업슬만치되엿다 氏는品質이剛明正直하고 公德心이만어 社會事業에貢獻한바莫大할뿐아니라 特히窮民子女의敎育에犧牲의心血을傾注하야 粉骨碎身的苦心으로 初志貫徹을爲하야 奮鬪를繼續하는中으로 氏의過去十三年間犧牲的努力의結晶이 卽私立安青學校이다 同校는 이미三千餘名의文盲을 退治하엿고 現在에는 農藝部男女學童六百五十餘名을 收容하야 入學難이極度에達한當地初等敎育界에 莫大한貢獻을하고잇다 이리하야 氏는敎育界의恩人으로 一般의 賞讚과推仰을밧는中이다 (寫眞은 金台榮氏)

熱과誠의結晶인 私立安青學校
教育安城에功獻赫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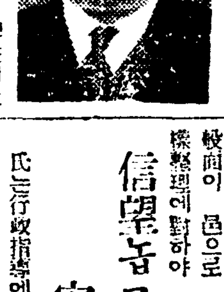
安城은 第二開城이라는評을듯는만치 殖産에밝고 商略에能하야 往昔부터 商工業이相當히發達되엇고 지금도 大小店舖와各種會社組合等 營利機關이市街에櫛比하니 그主人公은 大槪當地의有數한財産家로 年來에安城社會에多大한供獻이 非一非再엇지마는 이中에서 唯一한無産教育機關이잇스니 卽私立安青學校이다 現下入學難이 極度에達하야 學齡兒童의僅히二割八步밧게 就學하지못하는 安城으로서 安青學校의存在가 如何히必要不可缺한가를 생각하면 이學校의前途를祝福하고 이學校의維持發展을爲하야 物的心的으로 最大最善의援護를加하지안흘수 업슬줄을安城人士에게 紹介하고십다 이學校의來歷을紹介하자면 大正十四年五月에 當時安城青年會長 金台榮氏가 教育에特別한關心을가지고 青年會幹部一同의 贊同을바더 夜學會를設立하고 職業을가젓거나 學齡이過하야正規의敎育을 바들수업는者와普通學校의收容力이 不足으로 就學하지못하는 兒童을收容하야 初等教育을시키기로하고 金台榮氏가 設立者兼院長이되여 同年九月에 私設學術講習會安青學院設認可를 밧게되엿스니 이것이 今日私立安靑學校의 始初이엇다한다 敎室도업고 教授器具도업고 經費辦出의 方策도업시 學院을始作하게되매 學院當局者의 苦心이말할수업시 큰反面에 一部에서는 無謀한짓이라고 憂慮까지하엿다한다 그러나 배울래야 배울곳이업서서 道路에彷徨하는 兒童들의 情狀을그대로 看過할수업다는熱과誠으로된 學院인지라 絶頂에達한困難이닥치거나 障碍가만터라도 해보자는것이 當時學院當局者의 意氣요 決心이 엇든것이라한다 이리하야 設立된이學院의 前途에는 果然艱難이重疊하야 마치風前燈火가튼 運命을오즉 눈물과 피로서 부잡어가는동안에 漸次學童이增加되고 社會의同情이翕然이 集中하게되야 有志諸氏의 奮起로 後援會가組織되야 敎室建築을보게되고 各方面有志人士의 援助를바다 이學院이작구成長하게되야 昭和六年부터 女子部를 並設하고 十週年을 마지한 昭和十年에는 內容을 一層充實히한後 農藝部를 私立安青學校로 昇格認可를 밧고 夜學部는 從前대로 經營하야今日에 至하기까지 三千餘名의 文盲을 退治하엿고 現在에는 農藝部 十學級 男女學童 六百五十餘名을 收容하엿다 安青學院을 開設한지 이미春風秋雨十三個星霜의 오랜동안에 萬難을무릅쓰고 이學校의 維持發達을 爲하야 心血을 傾注하는 同校設立者兼校長 金台榮氏가 何等報酬도업시 畢生의 事業으로녁이여 物的犧牲的精神에 對하야 感歎不已하는바이다 이學校를 金氏의 單獨事業으로 생각하고 我不關焉의態度를 가지는人士가 잇다하면 이는千萬不當한일이다 現在各方面有志로 組織된 理事會와 後援會가 同校의 維持에對하야 用力함이 크다할지라도 이것만으로 滿足할바이아닌즉 一步를進하야 同校의 財政的基礎를確立하야서 後進敎育에 遺憾이업게할責任은 全혀 安城一般人事에게 잇는것이다 萬一此와 反對로對岸火災視한다면 學校의前途는勿論 已往의 心的物的으로愛護하던恩惠도水泡에 歸할것이아닌가 安城人士여 奮起하라

(寫眞은圓內池榮得氏와商會全景)

輪業界의霸王 池榮得商會의壯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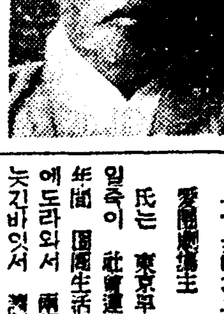
安城市場中央에서 飛躍的發展을보이고잇는 自轉車及自轉車附屬品販賣商會가잇스니 卽池榮得商會이다 氏는일즉이學業을맛치고 十年前부터 斯業界에 從事하야 今日의 成功을본 今年三十一歲의 青年活動家이다 元來性質이 溫恭謙遜하고 篤實勤勉하야 一般顧客에게 親切叮嚀과薄利多賣의 主義로써 京城、日本內地原産地에서 直輸入하야 低廉하게 販賣한다 그럼으로 販路가 京南一帶로 廣汎하며 業務가 追日繁昌되니 氏의 將來와 商會의前途가 洋洋할것이다

智略이超越한 振安自動車會社長 朴周秉氏



氏는 眞摯寬厚하야 修道士의風이잇다 恒常耕牧을 조아하고 煩雜을 끼고 門內守靜하나 事業遂行에對하야는 智略과 手腕을 揮하는데는 東亞誰及이다 當地鍮器工業이 衰微함을 慨歎하야 鍮器製造會社를 組織하고 工場을 設置하야 工業界에 大光明을 放하엿다 그리고 公益心이 豐富하야 道立醫院創設時에 私財에서 五千圓을 率先捐出하엿다 (寫眞은 朴周秉氏)

一流의德望家 安城邑長 徐相準氏



氏는 言語이明朗하고 儀容이 엄숙하야 純粹仁厚한 老熟의 君子이다 四十餘年의긴 歲月을두고 여러가지 要職에잇다가 近年에는 安城社會에 盡力從事하야 到處에 名聲을 博하고잇다 往年에 面民衆에依하야 面長으로 就任되엿는데 今般面이 邑으로 昇格한結果 邑長으로 就任되엿다 아프로 邑政을爲하야 만은 活躍이 期待된다 (寫眞은 徐相準氏)

信望놉고期待만흔 安城郡守 安昌煥氏

氏는行政指導에 周到綿密하고 産業振興에熱心努力하야 郡民의 敬仰의的이거니와 現今安城面이 邑으로昇格됨을따라 多年間宿題이던 中等程度學校創立、普校增築、大講堂建設、市區改正、重要道路開通、市場整理其他各般施設을 促進에對하야 全郡民은深甚한期待를가지고잇다 (寫眞은安昌煥氏)

模範的青年 李海泳氏

氏는 幼年時代부터 極히活潑하엿고 養正高普를맛치고 東京에 留學하엿다가 事情에依하야 鄕第로歸하야 基督敎會에 信仰하엿다 그後에金剛山에 入하야 佛敎의眞理를 研究한結果 眞實한 佛弟子가되야 前日의活動을버리고 佛敎를研究하며 道를조아한다 그리고當日에相交하던 知友가 嘲笑하되 三十餘歲의青年으로 六七十老人의行動은 滋味업다하면은 一笑하고 吾人은 이러케말하네 前日에 安逸活動은 死海泳이고 今日에 潛心靜居는 生海泳이다 사람으로 사람다운사람이 되라면 立志가必要하다 立志하지못하고 隨風逐浪하는 活動이야 死가아니고 무엇이냐하며 眞心勸導한다 氏는 眞로模範的青年이다

孝誠至極한 愛國精米所主 朴衡秉氏

氏는 東京早稻田大學出身으로 일즉이 社會運動을 하다가 多年間 囹圄生活도 하엿다 鄕第에도라와서 兩親이 白髮衰服에 늣긴바잇서 孝誠으로 修養하다가 令弟(名精米所經營)가 營業家로서 不幸히 夭折한 後로 二令弟를 訓率하야 愛國精米所를 新築하고 生計를 조하하던 營業으로 悠安하겟다하고 그經營의 收入으로 每年六百圓式 私立安青學校에 寄附한다 그前東京在學時에도 留學生으로서 學費가不足하다면 주머니를 기우려 救急하엿다한다

斯界의權威인 德濟醫院長 金龍雨氏

氏는京城醫專出身으로 忠北道立淸州醫院과 忠北鎭川郡愛人醫院英國聖公會의經營에 奉仕한지 十有年間 實地上으로 試驗研究한結果 獨自의經營이必要함을 늣기던차에 此地人士의 斡旋으로 德濟醫院을開設하엿다 患者에게 親切하고 藥代及手數料도 比較的低廉함으로 好評이藉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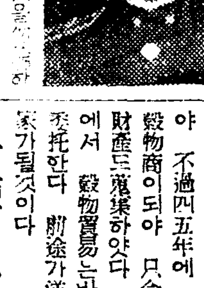
有意한商業家 合資會社大東社長 鄭殷薰氏

氏는 性質가 端莊하야 儒者의 氣像이나 心性이 剛明하고 周密하야 萬事에 秋毫도 差錯이업다 兼하야 仁慈함으로 現在商業을 經營함은 自己의 利益을 專主함이아니라 窮交貧族의 生活을 救助하고 社會事業에 運用하기爲함이다 元來氏의 父親(白元氏)이 貧困한 家門으로서 勤儉致富하야 同時에 一流慈善家로 稱頌된바이엇다 氏가 家訓을繼承하야 執務에 勤勉하야 商業界에 模範的으로 聲名이 籍甚하다 (寫眞은鄭殷薰氏)

社會의期待만흔 道會議員 睦頊相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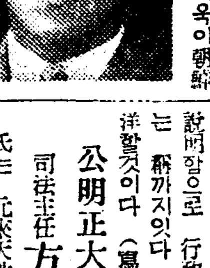
氏는 才智가卓越하고 頭腦가 明晳하야 社會活動에 그手腕家이다 多年間面協議員으로 安城酒造兩會社의 專務取締役이고 城南電氣 自動車會社取締役이고 今年에 道會議員에 當選되엿다 그런데 今般邑昇格에 伴하야 諸般施設調理에 手腕을 發揮하고 才智를 運用하야 큰業績을 남길것이며 安城社會의 面目을 一新케할줄 期望한다 (寫眞은睦頊相氏)

仁慈하고도敏活한 安城警察署長 田邊信治氏



氏는元來天禀이仁慈하고 明敏하고 沈着하고도活潑하야 一般民衆에게 德望과推仰이날로더하다 發生한事件은 圓滿히解決하고 見機制先하며 愚昧한 人民을可及的覺醒케하고 部下도 愛護에努力하며 何方面을勿論하고 人民에게利益이잇다면 極力周旋하야 郡民으로하야금 不言不知中에感化케한다 그럼으로氏는우리安城社會에 만흔感化事業을남겨노흘것이라고 一般은期待하고잇는바이다 (寫眞은 田邊信治氏)

刀圭界에一人 道立醫院長 竹村榮氏



氏는醫專出身으로 研究性이豐富하야 榮然 博士學位까지바덧다 明敏한 才質로 研究에努力한結果 刀圭界에 第一位를 占한다 本院의 初代院長으로 赴任以來로 一般患者에 對하야 官僚氣分은 秋毫도업고 더욱이 朝鮮人의事情에밝어 患者의 心理에 適合하도록 治療하야준다 그리고 親切丁寧하야 一般的으로 活佛이라는 好評이잇다 (寫眞은竹村榮氏)

穀物界의霸王 竹山穀物商組合長 鄭東秀氏

氏는 儒家의 生長으로 溫柔하고 父母에게孝하고 兄弟에게友愛하야 一鄕의 模範이다 朋友에게信義가잇서 그러나 財産이 裕足지 못함으로 小規模의穀物商으로 着手하얏다 誠心誠力으로 業務도發展되고 漸次로信用이確實함을따라 不過四五年에 郡內第一位의 穀物商이되야 只今에는 相當한 財産도蒐集하얏다 京城仁川方面에서 穀物貿易는반다시 氏에게 委托한다 前途가洋洋한 大實業家가될것이다

老鍊한行政官 內務主任 金貞德氏

氏는 開城出生으로 水原高農을 일즉이맛치고 內強外柔한 天禀으로 多年間地方行政에 訓鍊되엿고 待人接物에 純眞親切함이 獨特色이다 廳內何係를 勿論하고 行政上疑點이잇스면 반다시 氏에게 諮問한즉 瞭然히 說明함으로 行政上 百科全書라는 稱까지잇다 氏의前途는 洋洋할것이다 (寫眞은金貞德氏)

公明正大가特色 司法主任 方仁炯氏

氏는 元來天性이 謙讓剛直纖密하고 一般民衆에 對하야는 親切叮嚀을爲主로하고 犯人取調에 對하야는 秋毫도私가업스며 公平을期함으로 智謀勢力을使用치 안는다 (寫眞은方仁炯氏)

事業界의重鎭 安城商會社長 李鍾權氏

氏는儼然이 長者의風이잇다 그러나 事務上打算에는 鋭敏하다 十餘年前 酒造會社를 創立하고 社長으로 就職하다가 此를引退하고 更히本會社를 組織하고 建築部、材木部、委托部、運送部其他事業으로 多大한 利益을 一般社會에 提供하며 資財金融株式會社를 組織하고 社長으로就任한後 擴張하야 業績이良好한 同時에 附近貧民의 生活도潤澤하야간다한다 (寫眞은李鍾權氏)

財界의名望家 東一銀行支店長 徐廷翊氏

氏는普成專門商科出身으로 銀行奉職이 十六年이다 溫雅制敏이 兼備하고 才智德望을 併備하야 一般取引側에 對하야 歡心이 크다 그럼으로赴任은 日淺하나 業績이良好하야 貸出高七十一萬餘圓 預金高三十二萬餘圓에 達하엿다 그리고 部下統率에도 親切愛護를主張하고 더욱이 支配人代理崔學善氏의 明敏한手腕으로 補佐에努力하야 一家庭에兄弟叔姪이 歡然治産함과同樣이라고 好評이잇다 그래서本行의 將來發展이 旣定的인同時에 經濟界의 裨利도 多大하리라고 期待한다 (寫眞은 徐廷翊氏)

溫良한性格者 自動車會社長 市山直衛氏

氏는純實剛直한 性格者이고 活動家이다 多年間警察署長으로 奉職하엿다 氏가本郡在勤中에는 人民에게 福利를 多大히 주엇스므로 至今까지 氏의 口碑가 喧傳한다 勇退한 後自動車會社를 組織하고 一般旅客에게 親切叮嚀하야 交通上便益이 不尠하며 邑會議員、學校組合評議員、繁榮會副會長으로 地方發展上 만흔努力을 하고잇다 (寫眞은市山直衛氏)

漢藥界의泰斗 安城堂 韓宇東氏

氏는 稟性이仁慈하고 才慧가 特秀한중 兼하야 研究性이豐富하다 幼年時에 范文正의救人說과 陸宣公의活人說을着破한後로 公은 相位에居하고 此就를展시함은 後生에게 垂範함이 多大하도다 三十餘年을 開業한以來에 貧者에게無料施藥함뿐만아니라 病者에對하야 親疎를勿論하고 誠心으로 診治함으로 患者가 每日殺到한다 古語에 (醫는仁術)이라는 文句는 氏를두고한말이라하겟다

祝辭

朝鮮言論機關의 重鎭인貴報에서 今般安城地方紹介版을 發刊하야 地方의特殊한事情과 各般의産業施設은 勿論各界優秀한人士를滿天下에紹介케된은 本郡文化發展上 寄與함이不少함으로深甚한 謝意를表하는바입니다 貴社는 今後益益發展하와 社會의 木鐸된使命을 貫徹함과共히 躍進安城을爲하야 激勵하야주심을 切望不已하나이다

安城郡守 安昌煥

唯一의篤志家 安城第二金組長 鄭寅肅氏

氏는名門의後裔로 早失父母하고 海外에 漫遊하며 六七星霜을 客地에서지내다가 느낀바잇서 歸鄕하야 農業에 着手하얏다 낫이면 몸소 동을메이고 밤이면 繼續하며 隣里農民을 召集하야 農事講話를 하야 前日의 瘠土가 今日에 沃土로 化하게되얏다 道郡當局의 表彰補助金도 잇슬뿐 아니라 各郡의 見學者가 年復年多數하다 그리고 只今은 當地一流의 模範部落으로 化하엿다

朝鮮料理 太平館

安城市場에 宏傑한 二層建物이잇스니 卽著名한 朝鮮料理元祖 太平館이다 顧客의 酬應親切 食品의 精美 妓生의 歌舞가 地方的으로는 第一일것이다 (寫眞은 太平館 會席의一部와 主人夫婦外美妓一同)

社會의明星인 安青學校後援會長 閔泳善氏

氏는 大東法科出身으로 兼하야 漢文學識도 豐富하다 多年間 辯護界에從事하야 法曹界名士로 聲望이 高尙한同時에 一般訴訟者에게도 多大한利益을 주엇다 其後에 鄕第로歸하야 邑內面長으로 道評議員으로도 活躍이잇섯다 本會長으로서도 無産兒童을爲하야 苦心努力하는中이다 그리고氏는溫良하고도 剛直性을兼하야 交際上으로는謙恭無比하되 人民에對하야 利害잇는會場에서는 忌憚업시 敢論抗辯하야 뜻을굽히지안는特性이잇다 (寫眞은 閔泳善氏)

典型的教育家 安城普校長 旗智作之助氏

氏는多年間 初等敎育에 從事하야 多數의人材를 養成하고 安城青年의 指導敎養을 爲하야 安城體育協會長 安城青年團長으로 斯界에 功績이만타 그리고 天性이仁慈하야 兒童에對하야는 일러自覺케하고 青年에對하야는 圓滿히 訓鍊하야 自然感化케함으로 典型的敎育家이라稱한다 (寫眞은旗智作之助氏)

典型的篤志家 鳳陽小野主人 朴嵩秉氏

氏는沈重한 性格으로 磊落한 氣槪를 兼備한人格者이다 일즉이 遠大한뜻을품고 世界遊覽을 企圖하야 支那各地까지 갓스나 周圍의事情으로 一步를前進치못하고 六七星霜을 海外에서彷徨하다가 그父親의 一書로 速히歸家하야 老父의奮鬪하든情을 慰하라는一句에 切實히 늣기고 初志를 斷하고 決然歸鄕하야 兄弟叔姪의 友愛敦睦을 實踐力行하야 平和한一門을 形成하얏다 그리고 社會輿論에依하야 安城繁榮會理事、郡農會議員、安公普學父兄會長、體育協會長、商工貯蓄組合長으로 活動中이다 (寫眞은朴嵩秉氏)

唯一의百貨店 正屋 金順宗氏

安城市場中央에 正屋百貨店이고 그主人公은 靑年商業家 金順宗氏이다 氏는 일즉이 學業을마치고 商業에 從事하야 斯界에 成功한 手腕家로 薄利多賣主義로 物品을原産地에서 直輸入하야 家庭에日用物品과 旅客의行具品 學生의學用品 무엇이나 업는것이업고 陳列의整齊 價格의低廉뿐만아니라 顧客酬應에 親切迅速함으로 公私注文이 輻輳한다 安城에 來往하는 紳士淑女는 누구나 歸訪한다 정말우리安城에자랑거리다 (寫眞은 金順宗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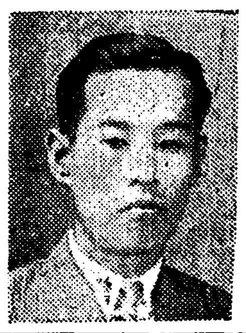
敏捷한活動家 自動車會社常務 尹在喆氏

氏는 溫恭하고도 活潑하야 사람에게 好感을주며 明快하다 十餘年間 警察界에 奉職時에도 一毫의私가 업섯다 昨年에 本職을辭하고 本社에就任하야 重任을 帶하게되엿는데 顧客에게 親切함은 勿論이다 (寫眞은 尹在喆氏)

青年資產家인 東光興業會社長 朴容觀氏

氏는 純實勤勉한性格으로 祖先의遺業을繼受하야 境內의有數한靑年財産家이다 그런데近代靑年의 浮薄한行動을戒하면서 實生活에着力한다 鑛業、印刷兩會社取締役、學務委員邑會議員으로 社會事業에는 金錢의多少를不拘하고 秋毫도吝惜의 色이업다 今春에東光會社를組織하고 材木、穀物、建築、肥料等事業으로 將來의發展을可期하며 同會社의 專務李南秀氏는 事業家요 活動家요 手腕家임으로 同社는將來益益發展될것이다 (寫眞은朴容觀氏)

刀圭界의權威 大東醫院長 李鍾震氏



氏는忠淸南道禮山郡에 原籍을 두고 일즉이福岡縣九州醫專에서 醫學을마치고 同時에京城醫專附屬醫院內科에 奉職하며 相當한 學術과 實地를研究하야 優秀한 技倆을 가젓다 우리安城醫療機關이 不充分함을알고 慨然히생각하야 市場中央에新舍를建築하며 諸般醫具를 無遺히 設備하고 開業한지이미 四個星霜을經過하엿다 氏는元來性格이仁慈寬厚하야 一般患者에게 親切周到함으로 患者가每日殺到한다 (寫眞은 李鍾震氏)

酒造界의王者 注川市場醸造場 閔泳昌氏

氏는質實勤勉이 特性이다 本來安城邑西里에서 醸造場을 開始하엿다가 其後에 各醸造場이 併合하야 會社로 成立된後 常務取締役으로 勤務하다가 注川市場에서 獨營으로 醸造를開始하엿다 氏가勤實한性質로 醸造에 關하야 躬行實踐하고 多年研究한結果 品質이 極佳함으로 本郡은勿論이고 驪州、利川、陰城、鎭川各郡에서도 多數히 注文한다 그럼으로 不遠한 將來에 大成功할것이라한다 (寫眞은閔泳昌氏)

營利보다公益에 不二産業會社長 朴容寅氏

氏는 公益을 爲하야 各方面으로 活動하는데 遠近에서 肥料를購入하야 一邊으로 低利配給하고 一邊으로 繩叺工場을 設置하야 有閑婦人에게 熱心救濟하야 業績이 逐日良好하다 그러나 氏의 目的은 營利에만 잇지안코 公益에 잇다 利害를 不顧하고 公職으로는 邑會議員 繁榮會理事等으로 地方發展을 爲하야 活動中이다 (寫眞은 朴容寅氏)

地方發展을圖하는 孔道商興株式會社長 金鍾祿氏

氏는 元來資性이 溫順하고 眞實한 儒者의 風이잇다 일즉이 孔道面龍頭里鄕第에서 治産을하야 一鄕의 模範的人物이되엿다 其後地方發展上 有利한機關이업슴을 遺憾으로생각하고 今般本會社를 組織하야 社長에被選되야 農村에絶對必要한 穀物肥料農具官鹽等 實買를 爲主로한다 (寫眞은 金鍾祿氏)

宗敎教育家인 安法普通學校長 李福永氏

氏는 일즉이 聖心學校中等科哲學科와 神學大學을 맛치엇고 典型的 宗敎家이다 再昨年 本郡天主敎會로 赴任한以後 敎徒에對하야 布敎는 勿論이고 一方으로 그敎會에 附屬된 安法學校에도 氏가 校長으로 任命되야 敎舍를 增築하며 內容을 充實히하야 安法普通學校로 昇格시키고 地方人士로하야금 後援會를 組織하야 將來發展을 圖謀하는 初等敎育界의 努力과 活動이 不斷하다고 一般稱頌이 藉藉하다 (寫眞은李福永氏)

活動的事業家 鍮器製造會社支配人 尹喆周氏

氏는 일즉이 學業을마치고 社會事業에 努力하다가 其後安城鍮器가 自來로 有名하더니 時運의 變遷에伴하야 衰頹不振함으로 氏는此에 慨歎함을느끼여 同志를糾合하야 會社를 設立하고 工場을 設置한結果 海內海外의 輸出이 增加하엿다 公職으로는 邑會議員、安靑學校學監、學務委員等으로 地方을爲하야 努力이만타 (寫眞은 尹喆周氏)

實業界의重鎭 朴容復氏

氏는일즉이 中學을맛치고 東京에서 經濟學을研究한후 氣分的인學徒들과는 그類를달리하야 곳實業界에投身하게되엿다 一便으로는 父親되시는 安城의巨星 朴弼秉氏의事業을 補佐하면서 業務에 精勵하며 治産을하야 實業界의 模範的人物이되엿다 安城酒造會社常務를始하야 城南電燈、安城酒造兩會社取締役으로 安城實業界의重鎭이되엿다 그뿐만아니라 體育方面에는 特別히 着眼한바잇서 安城體育協會理事安城庭球部

漢藥界의重鎭 共安堂藥房壯觀

安城의銀座인本町市場에 堂堂한 建物로 躍進的發展을하고 金晉春氏의經營인 共安堂藥房은 畿湖一帶에뚜렷한存在로서 斯業에可謂獨步的地盤을築造하고잇다 氏는 今年四十八歲의壯年으로 元來性實이 寬厚謙遜하야 交際에恒常溫和하고 一貫으로好感을주며 또頭腦가明晳하고 力量이잇스며 數十年間藥業界에 修鍊과研磨를 쌓어 商略上 用意周到함이 오날共安堂의成功을보게하엿다 開業한지二十五週年인 今日에 各界의去來를 一瞥하면 人蔘鹿茸과內外藥種을 無漏하게 産地로부터 直輸入하는外 共安藥房 丸等製造販賣도 不少함으로 總去來處는 全國的으로 廣汎하야 業務의發展은 名實共히 天馬行空의勢로前途가 洋洋하다 (寫眞은金晉春氏)

祝 安城地方紹介版發行

城南電氣株式會社

安城公立初等學校長會

地方論壇
普校擴充을再論
特히學年延長을絶叫

義務敎育을 實施하고잇는 國家에서는 배우지안으려고해도배우지안을수업는 法規가잇슴에不拘하고 朝鮮의敎育現狀은 배우고자할지나 배울수가업는 안타가운實情이아닌가? 普校入學兒童에게 入學審査 하뎐떠나가면入學試驗이라는 러문이업는 형편을씨우며 文明한國家에서 일직히드러보지못한 矛盾千萬인入學金徵收하고 甚至於 學校에서兒童에게 配給하는 通信簿用紙代까지賃擔을 다시키고도 오히려不足하야 그代價으로는 六年制의 普校도못되고 四年制의 普校를 겨우卒業케되며 四年制의 普校라도 卒業할수잇스면 그는以前 科擧에 進士及第나 한듯하게 어려우니 朝鮮社會實情에비추워 敎育은무엇보다 重大하고 國家成長에 關係되는바 크다고 할수잇다

伊川郡內는 現在十一個普校가잇고 四個의 簡易學校가잇서서 入學適齡兒童의 一割六分을 收容하고 잇스며 六年制로는 五個普校고 殘餘六個普校는 尙今四年制라는 制度를 버서나지 못하고잇다 그까닭에 月岩公普校의 學年延長을 爲하야 東西民一同은 타오르는 敎育熱의 赤誠을 다하야 面內六百餘戶에서 二千五百圓을 一時에 據出하야 學年延長을 꾀하고잇스나 當局者로서는 何等의動靜이업고 鶴岡公普校에서는 學年延長 學級增設을爲하야 期成會를 發起하고 面民에게 全幅的으로 戶稅等級에 基準하야 所要의費用을徵收하기로 猛活動中이며 山內 板橋 龍浦 熊灘의 各面民도 亦是他面에 지지안으려고 率先하야學校擴充費用 寄附에 鋭意精進中이나 何等의對策이업서 一定한 旣定方針을實行이라고만 主張하고 잇으니 所謂旣定方針이라는 普校擴充案十個年計劃에 不外하는 바 伊川郡敎育擴充案十個年計劃은 筆者旣히 本論壇으로서 論評한바잇거니와 그擴充案이 完全無缺치못한것은 當局者도 充分히認識하는바로서 時急히 現在樹立된 擴充案의 改修를할것과 學年延長의 期限을 最短期間으로 二年以內로 短縮하야 六個普校에 一年에二個普校式이學年延長을 實施하야줄것과 特히 學級增設을 倂行하야 敎育朝鮮의進路는 勿論 十年間의 普校擴充新計劃이 完成實施以後 겨우 適齡兒童의 六割을收容케한計劃案에 나타난 收容率을 느저도 十年後이면 義務敎育施行을 目標로서 나가지안으면 朝鮮의敎育은 完全을 期키難하고 더욱히 無智가無智를낫는 慘憺한바를 하로밧비 國家政策으로서 暗黑에서 버서나 光明한빗에 울보도록 하야줄것과 今年內로 月岩、鶴岡의兩校는 必히 學年延長의 敎育의消息이잇도록 民의 意思에副하야 所期의目的達成에 잇는바 當局의 힘을보혀주기를 바라고 마지안는다 (伊川支局 一記者)

長32粁、幅10米突의 京仁間大運河計畫
一萬噸以上의大型船이碇泊 總工費는約二千萬圓

【仁川】지난소화십일년도로부터 경인(京仁)일체론이 대두하기시작하야 점차구체화하고잇서 인천부윤으로부터 총독부와 경기도의 응원을바더 만근그실현에 착착진행중이라한다 그중에도가장중대문제가되야잇는것은 경인운하(京仁運河)문제로서 계획내용을조사하야보건대 이는경인간 취단거리인 상수도선로를 준하야 측량한바 삼십이『키로』에 불과하다는 자신을엇게되자 이를또한 널미 십미돌(米突)의운하를개통케한다면 총경비이천만원에달할뿐아니라 동운하의개통을보게되면 운하(運河)입구에 일만도(噸)이상의 대형선이정박하야 일천도(噸)의『가스다ー』선으로경성으로 화물을운반하게할계획이며 이외한가지 매년림우기(霖雨期)에 적지안흔피해를입는 한강(漢江)연안에 홍수난도해소될것이라하야 이에대하야는 경성부에서도 적극후원을할것이라한다

長湍防空大講演

【長湍】장단방공대강연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십사일 오후오시반부터 진남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서군수(徐郡守)사회하에 보병대좌사교도(師橋渡)씨가 등단하야 방공문제에대하야 총후의결속을 일층공고히하야 국민으로서 시국대응의무를 다할결심을강조하야 사자후를 장시간에공하야 청중에게 다대한감동을 주엇는데 청중은 정각전부터 문자와가티 장내는 입추의여지도업시 운집하야 대성황을 일우엇섯다

北朝鮮水害民에게 同情金品을寄附
永登浦極光工業從業員들이 本報支局에傳達依託

【永登浦】발명품 제작공장으로 조선유일의 종합적 시설을가지고잇는 영등포 극광공업주식회사(極光工業株式會社)에서는 얼마전에 북지사변에 대한국방헌금으로 종업원일동이 각일일분급료를모아 현금일백 삼원오십전을거출한 일이잇섯는데 이번에는 도평북미증유의 수해로말미암아 만흔생령을일코 가장집물을모조리 물에떠나려 보낸후 길거리에서 주린배를 움켜쥐고 방황하는 불상한동포를 위하야 한줌의쌀이라도 난우워 달라는 갸륵한 열정으로 아래와가티박봉에서 각각동정금을 모아본사영등포지국(本社永登浦支局)으로 부탁하여왓슴으로 동지국에서는 감격하야직시본사에 전달하엿다고한다

▲金一圓 李承國▲金六十錢 南忠熙▲金五十錢 朴英植 秋基守▲金三十錢 朴龍澤 諸廣壽 崔日權 李奉九 朴雨文 李相勤 崔日柱 李弼武 李寶根 石田常吉 小田九一 兪元鐘 金虎鉉▲金二十錢 金基聲 孫光恩 朴炳珠 車龍澤 閔興容 沈今龍 田鳴九 田用達 金容浩 白壽命 崔相龍 延益壽 金東鳳 李壽榮 金在福 李一成 洪基泰▲金十五錢 李在德 李鍾萬 鄭有成▲金十錢 車斗天 李豊玉 李妙順 尹慶華 高陽得 宋順南 金愛植 張良淑 ▲金十圓 極光社員一同

다시보는 近畿의 山과물 ⑦ ——(議政府에서 멀니 道峰山을眺望)

大金數次獻納
江華金字中氏特志

【江華】강화군내의 총후성의는 과연 놀내일만한 사실로서 각방면의 관심은 날이갈사록 두터워지는바 지난십사일에는 강화군길상면온수리(吉祥面溫水里)에사는 김우중(金宇中)군이 오백원의 헌금을탁하야 왓는바 군은 군사후원회에도 이백원과 비행협회에도 일백삼십원 그밧게도 근일 열성껏 헌금을 거듭하야왓다고한다

日曜의月尾島에서 水泳튼兄弟溺死
아우를救하다가兄까지빠저

【仁川】백도의비등점(沸騰點)을 육박하고잇는 수은주(水銀柱)는 맛참내소화칠년이래의 초기록의 자최를남기고 강하(降下)하기시작하야 발서아참저녁은 서늘하야진이때에 월미도(月尾島)에서 헤염하고잇든 형제가익사하얏다 그는인천부경정(仁川府京町)최준필(崔俊弼)(一二)최준순(崔俊順)(○)형제로 지난십오일은 가을을맛는 일요일이라 경인각지로부터 해수욕객이운집하야 잡답을일우고잇슬지음 림해(臨海)학교해수욕장외에서 수영을하고잇든동생준순이가실족하야 위험한상태에이르자 그형이 이를구하랴고하다가 맛참내 헤염하든형제는무참히도 서로얼사안은채 익사하엿다한다

老炎에 드보낀 남아에

採石場人夫도獻金

【金浦】북지사변을발한후 김포군내각방면에서도 국방헌금이매일 답지하는상태인데 양천토목공장채석장(陽川土木工場採石場)에서 로동하고잇는 백여명인부들이 최고일원오십전으로부터 이하십전까지 각자출연하야 사십오원팔십전을수합한후 지난십오일에 김포경찰서에 국방헌금으로 기탁하엿다

本報開城支局後援 全朝鮮水上競技
來廿二日府營"풀"에서

【開城】본보개성지국후원과 고려청년회(高麗靑年會)주최로 개막되는 제삼회전조선수상경기대회(第三回全鮮水上競技大會)는오는이십이일 오후한시부터 부영(府營)"풀"에서 장엄하게 전개케되바 일반수상용사(水上勇士)들은 다수참가하야 주기를바란다는데 경기종목 신입기일은 다음과갓다

競技種目
自由型=百米、二百米、四百米 八百米、千米
背泳=百米
平泳=二百米、四百米、五百米
메도레=三百米
리레ー=四百米(團體)
申込期日=八月十九日後四時까지
參加費=二十錢

始興郡西面에서 青年團을結成
石野校長을團長으로

【永登浦】시흥군서면(始興郡西面)은 설규영(薛奎榮)면장취임이래 농촌진흥운동이 철저히진행되여 착착그실적을 거양하고잇는터인데 이번에 시국중대성에감하야 크게농촌청년의각성을촉진할필요가잇슴으로 그대처책으로 석야 서면보통학교장(石野西面普校長)은 면내졸업생을 중심으로 열혈청년 백여명으로써 서면청년단(西面靑年團)을 조직하고십삼일오후한시부터 서면보통학교(西面普校)강당에서 능천시흥군수(能川始興郡守)외관민유지 삼백여명림석하에 성대한발단식을거행하엿다고한다

葛山溫泉發展
自動車線路開始

【伊川】강원도이천군방장면갈산온천(葛山溫泉)은 원래유수한온천인데 단지과거교통이 불편한관계로 널니선전만되지못하엿스나 현재로는 매일자동차가통행하야 해마다욕객이 격증할뿐만아니라 금번이천원산간(伊川元山間)자동차가 새로인가되면 불일간정기운전을 보게될터이므로 압흐로는 매우발전될희망이잇다한다

非常時公設市場
日用品激增、柴炭減少
京城八個市場七月中賣上高

경성부에서 경영하는 화원(花園) 룡산(龍山) 서대문(西大門) 마포(麻浦) 영등포(永登浦)등다섯군데공설시장에서 칠월한달동안에 판매한총액은 합계륙만삼천팔백십팔원으로 작년칠월에비하여 륙천칠십륙원이 증가하엿다

그리고 동대문(東大門) 서린정(瑞麟町) 서대문(西大門)등세곳시탄시장의 칠월한달동안 판매총액은 사천오십원으로 작년칠월에비하면 십팔원이 감소하엿다

061628

곤한여름밤에 鼠賊出沒頻繁

【洪川】끈칠줄몰으는 구진비를뒤이어 찔는듯한무더운 하절주간에 시달리든심신을 회복코저홍금을헤처노코 곤한여름잠을 일우다가 머리마테 두개의금고와 량중의 지폐를일흔 서늘한두절도사건이잇다

지난십이일 오전한시경에 홍천군홍천면진리삼번지(洪川郡洪川面津里三番地)수유판매업자 리성준(李成俊)집에 대담스럽게 절도가 침입하야 머리마테 노아두엇든 일백오원들은 금고한개와 십여원들은 금고한개를 절취하야 십여원들은 금고는후정에던지고 일백오원들은 금고는 약오륙간떠러진 울밧가에서 파괴코절취하여간사실이잇스나범인은 아직체포되지아니하엿다 동야오전한시경 읍내모학교숙직실에 침입하야 숙직원의양복에서 감쪽가티 십원을절취후 만족지못하엿는지 다시 직원실문을 파괴한후 삿삿치 실내를뒤진후 헛수고를 분개함인지 걸여잇든양복에잇는 단일전마자 절취당하엿다는바 즉시소관 홍천서에 계출하엿다한다

換節期仁川에 赤痢病者續出

【仁川】무루녹은혹서중을 녹일듯한폭서(暴暑)도 가을로환절이되랴고하는이때에 전염병의창궐이 가장위험하다 지난십사일 인천부내에는 하로에적리병환자가칠명이나발생하얏다는데 그는룡강정(龍岡町)삼십일번지 광뢰양일(廣瀨洋一)외에삼명 송림정(松林町) 박룡구(朴龍龜)와룡좌(龍佐)등칠명에달하야 방금덕생원에서 치료중이라는바 발서팔월반년간에 환자의루계 오십팔명에달함으로 김위생주임은 방금방역에 로력중이라한다

伊川兒童學校 修了式擧行

【伊川】강원도 이천군읍내기독교감리교회(基督敎監理敎會)주최로 금번하기아동학교를 개교하야성황리에 종요하고 지난십일일에 당디례배당 이층에서 서승훈(徐承勛)씨사회하에 수업증서수여식을 개최하야 교장백학신(白學信)씨의 훈사 윤옥순(尹玉順)씨의 학사보고가잇슨후 성황리에 금번하기아동학교를종요하엿다

國旗揭揚臺寄贈
始興西面三有志가

【永登浦】군국비상시에 국체명징의 관념을 더욱철저히 기할필요가잇슴으로 시흥군수능천청지조(始興郡守能川淸之助)씨는벌서부터 관내각면각학교에 국기게양대의 건설을 계획하고 착착실시하는터인데 서면(西面)에서는 유지설귀영(薛貴榮)안문서(安文瑞)장무현(張茂鉉)등 삼씨가 동군수의 성의에 대하야 절대적후의를가지고 자발적으로 각각 금일백오십원을 거출하야 서면사무소(西面事務所)서면보통학교(西面普通學校) 동면노온사(老溫寺)간이학교(老溫寺簡易學校)등삼소에철제게양대를 기증하엿슴으로 수일오후일시부터 서면보통학교교정에서 능천군수(能川郡守)외 관계관민유지삼백명이참렬하여 성대한국기게양식을 거행하엿는데 일반은 동삼씨에게 감사한다고한다

長篇小說 花冠 【19】
李泰俊 作 金奎澤 畵

세화살 (三)

김장우가 아모리 벗석 나만저도 동옥은 무슨 꿈속처럼은 끔작못하게 무섭지 안타。안에서도 직결직결하는 여러사람의 기척이 들려오고、건너편 학교마당에서도 아이들 뛰는 소리와 어른들 게다끄는 소리도난다。동옥은 말동히 김장우의무풍은얼굴을 처다보며 똑똑히발음하엿다。

『진정이구 거짓말이구 전모릅니다。무슨 실례의말슴이신너까?』

『……………』

김장우는 단번에 고개가 푹수그러지고만다。

『다신 저한테 그런 말슴 말아주세요 전 불쾌할뿐 입니다』

하고 동옥은 볼일을 다봐 하는드시 야무지게 치마를 털며이러섯다。속으로는 김장우가곳 덤빌것만 가터서 그의손부터나려다보앗스나 한손은 턱을 만지고 한손은 부채를 집을뿐 고개도 처들지 안는다。동옥은숨을 입속에 문채 날새게 발끄트로 구두를 차저신고 행길로 나섯다。

『으흥스런 녀석! 어디서 제따위가 다……』

동옥 생각할수록 분하다。행길을 건너와서는 침이나 배아틀것처럼 한번 도라다보앗다。그는 고개를 그저 수그린채 한손으로는 그저 턱을 만지는채 부채질만 거들거들하고잇다。

넓은 운동장을 다 건느도록 동옥은 얼굴이 화근거린다。달은 오늘저녁도 여믈지못한채 면ー산머리에 소사잇다。얼굴과 한덩어리인듯 아모리 바람이 오는쪽으로 돌리여도 마음이 진정되기 전에는 혼자식으려하지 안는다。정히는 으레무슨 이야기러냐고 물을것이다。지금 이 기분으로는 쓰렷드리고 다른 이야기로 꾸며 대일수가 업다。사실대로 이야기해주면 아모리 비밀이라고 일르더라도 입혜픈 정히가 저만알고 견딜리 업다。동옥은 길이 일직선으로 나간대로 혼자바다로 나오고 말앗다。

해변은 어스럼한 밤빗과 안개에 쌔여 뽀ー얀 수은의 산맥이 둘린듯하다。한참씩 고개가 아프게 처다보아야 별이하나씩 드러난다。

『으흥스런녀석! 동석오빤 왜 그따위녀석과 친구한가?』

곳 동석오빠에게 편지라도써 부치고시펏다。동옥은 첫재 자기의 귀의 처녀성을 일흔것가터 분하엿다。눈지르는 만혀지만 또렷하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일직이 자기의귀에 울려준 사나이는 아직은한사람도업섯다。처음으로 그순결한고막을 찌저버린 사람이어디서 저즌 옷처럼 몸서리가 처지는 김장우임에 귀를 떼여버리고십게 불쾌하고 분하엿다。그런줄은 모르고 오빠와가튼 태도로 이쪽을 위해 무슨 주의식혀줄것이 잇는줄만 알고 그의 감발쪽가튼 와이사쓰가 걸려잇는 칩칩한 방을 차저가준것이 입고갓던 옷을 모다 빨아버리고십게 께끈하고 분하엿다。

그러나、안개는 자옥히 끼엿서도 해변은 서늘하엿다。얼굴이 착근거리도록 식엇슬 때는 마음도 행결 공지가 생기는듯하다。

『가튼갑세웨그러케못낫슬가?』

그 김장우의 고개를 그저숙으렷드린채 한손으로는 그저턱을 만지는채 부채질만 거들거들하고 안젓는 꼴이 작고 보히는것이다。

『불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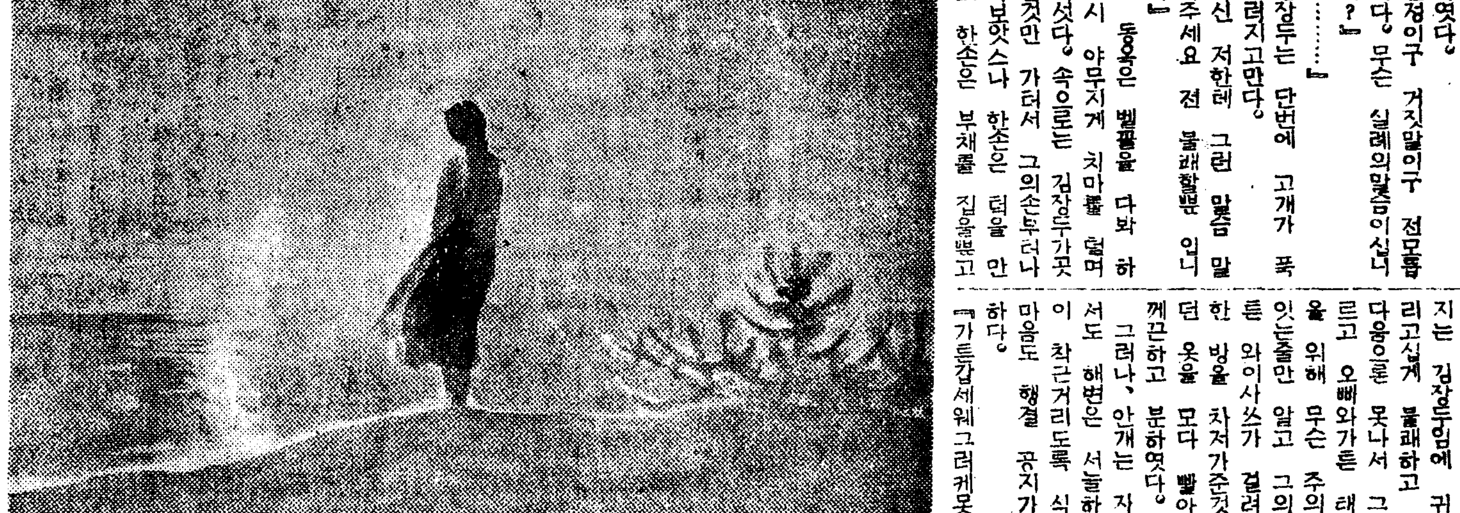
생각이 난다。그가 청하는것이 밥이라면 돈을 가진대로는 사먹이고십다。그가 청하는것이 옷이라면 속옷까지라도 벗어주고십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하나밧게 업는것을 청하는게 아닌가?』

어디선지 누가 휘파람부는소리가 흘러온다。

『아니、만일 저쪽이진정이기만 하면 사랑을 주는것도 선행(善行)의하나가 아닐가? 주기만하고돌아서면……? 돌아서면? 그럼 건 사랑이 아닐테지 사랑은 결국 한번 주는것으로 모든것을 주는것! 한사람이 지닐수 잇는건 오직하나의 사랑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어버릴수업는것! 이러케 간직혀나가는 단하나의 내 사랑을바돌 사람은 누군가? 오늘도 여러울림의 조개껍질을 주어보앗다。하나도 제짝끼리 맛는건 업섯다。하나이던것이 두쪽으로 헤여지는것부터 벌서비극이 아닌가? 타고난 비극에서 비극아닌기를 바라는건 그것이벌서 비극이요 과욕이 아닌가?』

휘파람소리가 가까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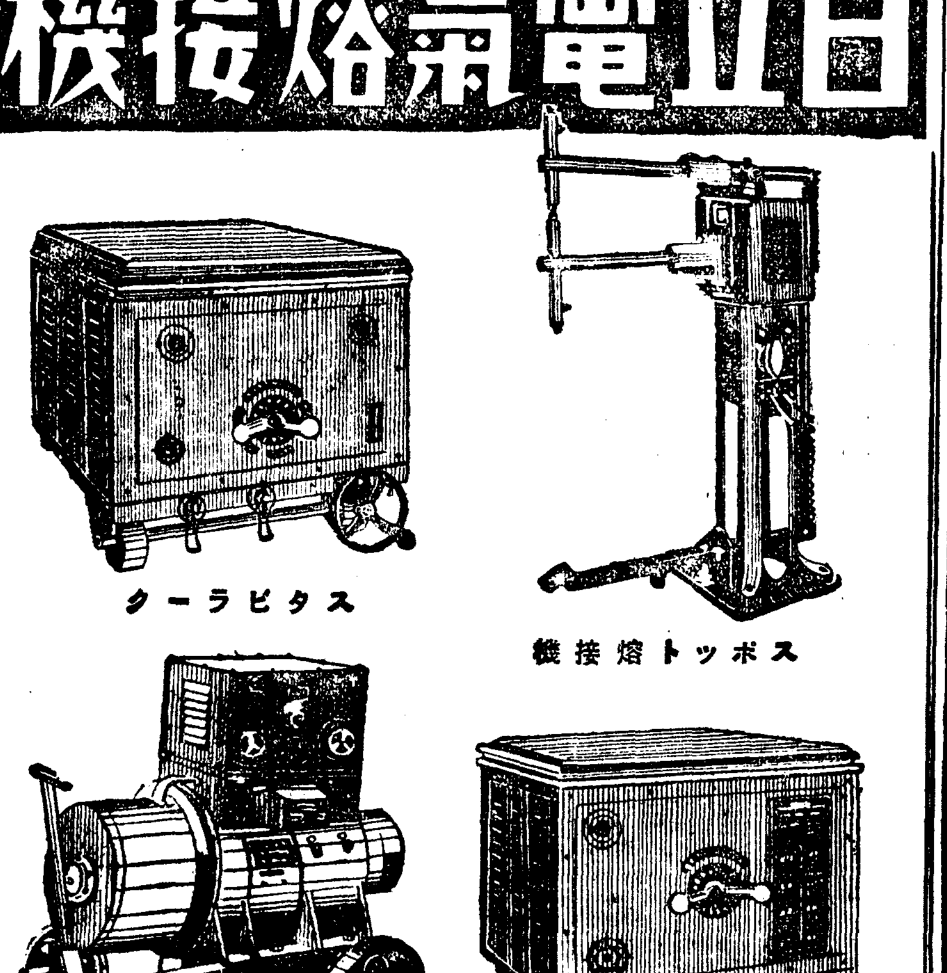


運動能力ノ增進ニ
カルシオ・コラミン
心臟을튼튼히하고呼吸困難을恢復시키고危急을救하며元氣를湧出함

12—35

神經榮養强壯 小兒發育促進
腦力體力强壯劑
フイチン (후이진)
植物發芽—生命의힘을나게하는重要成分인有機性燐化合物로서神經疾患을根元的으로治療하고頭腦를明快히또體內細胞의新陳代謝機能을더하고 體力、氣力을旺盛히하야體重을增加함。
神經衰弱、히스테리ー、健忘症、身體虛弱、虛弱兒童、病後恢復期、受驗期身體의疲勞等에最適함 또結核患者의初期에服用하면衰弱을防止하고病勢의進行을抑制함。
日本總代理店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特約店・東京日本橋區 小西新・鳥居・三共
文獻은大阪市東區瓦町三和ビル瑞西バーゼル化學工業會社日本學術部에서郵呈
補血强壯에 鐵フイチン
鐵을더허서 잘게한 粒狀フイチン

日立電氣熔接機



日立製作所
京城府古市町四三・東京・丸ノ內・平壤府黃金町五一

天下一品
龍 キッコーリウ 깃고ー류 醬油
萬 キッコーマン 깃고ー만 醬油
美味滋養 ほまれ味噌 호마레

上半期의經濟界
加藤鮮銀總裁演述

朝鮮銀行第五十六回通常株主總會席上 加藤總裁의「上半季間朝鮮、滿洲、支那方面의 經濟界大勢와 當行營業槪況」報告는 如左하다

朝鮮

經濟界는 當期에 잇서서 各種產業의 開發에 依하야 輕工業方面은 顯著한 活氣를 呈하는 同時에 日本內地企業家의 進出이 旺盛하고 重要物資의 移入은 一段盛況을 示하엿다. 又 昨年의 農況은 米、棉共히 前年에 比하야 減收이엇스나 米價의 高騰은 此를 償하고 … 鑛業界에 잇서서는 … 金의 增產이 顯著하고 … 石炭、鐵等의 … 漁業은 … 水產製造業은 … 市價低調에 伴하야 … 事業擴張은 近年未曾有의 盛況을 呈하엿다.

滿洲

滿洲는 … 第二期 … 建設 … 產業開發五個年計劃의 … 實施에 入하얏다 … 內外의 資本 … 本年의 … 對滿投資 … 北滿三港 … 前年同期에 比하야 減少가 아닌 … 貿易 … 輸出入 … 關東州 … 不況 … 大連 … 相當한 … 輸出은 … 輸入은 …

支那

支那는 國民政府의 幣制改革以來 … 經濟界는 … 日支關係는 … 北支에 對한 … 北支事變의 … 我國의 對支經濟工作에 … 本行은 … 天津、北京、靑島、濟南 … 支店을 … 上海支店 … 當行은 … 我國의 對支關係에 … 要求하는 바이다

朝鮮經濟躍進
上期도 上向一途
事業、貿易、金融、荷動等增大
各種經濟計數綜合

本年上期中의 朝鮮經濟의 動向을 各種計數로 綜合하야 보면 大體如左하야 依然히 上昇傾向이 顯著하다

◇計劃資本

本年上期中의 朝鮮內의 新設擴張에 關한 會社는 四百六社이고 資本金一億六千五百萬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면 社數는 六十四社、資本金은 五千百萬圓의 各增加이엇다. 그리고 鑛山業關係會社의 擴張이 顯著하야 各地에 巨大資本을 擁한 鑛工業關係會社의 設立을 보는 同時에 日本內地當業者進出의 重工業及輕工業에 關한 工場은 二十餘에 達하고 前年同期에 比하야 約倍加

◇銀行勘定

全朝鮮諸銀行預金貸出上半期末現在高는 預金四億二千五百三十萬六千圓、貸出八億五千七百四十五萬一千圓으로 比前年同期預金一千四百三十七萬五千圓、貸出一億五千百五十萬三千圓의 各增加

◇金組勘定

六月末現在全朝鮮金組預金은 一億六千四百萬圓、貸出二億四千九百萬圓으로 比前年同期預金八百萬圓、貸出五千三百萬圓의 增大

◇手形交換高

枚數는 百五十一萬二千枚 金額九億八千四百萬圓으로 金額一割二分增大

◇荷動

國鐵貨物取扱四百五十餘萬噸、貨物收入一千六百萬圓으로 前年에 比하야 數量으로 一割三分、收入으로 一割五分增

◇貿易計數

輸移出은 三億三千七百二十七萬圓으로 前年에 比하야 九分增、輸移入은 四億四千四百四萬圓으로 二割一分의 增加이며 就中輸出中 朝鮮產品輸出은 三千二百八十六萬圓에 達하야 前年에 比하야 八分增

事業界

當期中의 事業界의 狀況은 一般的으로 擴張에 關한 會社는 四百六、此資本一億六千五百萬圓으로서 이것을 前年同期에 比하면 社數는 六十四、資本은 五千一百萬圓의 各增加이엇고 鑛業을 始하야 各地에 巨大資本을 擁한 鑛工業關係會社의 設立을 보는 同時에 日本內地當業者進出의 軍工業及輕工業에 關한 工場은 二十以上에 達하며 前年同期에 比하야 約倍加되엇다 鐵道新線의 敷設、諸港灣의 修築擴大와 各都市發展에 伴한 建築等의 工事激增에 因하야 一般事業界는 特히 活氣를 呈한 同時에 前年來의 懸案이던 兩朝鮮의 電氣會社合同은 其實現되엇다

如斯하야 當期中의 朝鮮貿易은 輸出五千八百萬圓、輸入七千三百萬圓이오 一方移出은 二億八千萬圓、移入은 三億七千萬圓에 達하야 通計에 依據하면 輸移出三億三千九百萬圓、輸移入四億四千四百萬圓이다 이것을 前年同期에 比하면 輸移出은 二千八百萬圓增加 輸移入은 七千九百萬圓激增을 告하야 繼續하야 上半季貿易으로서의 最高記錄을 示하엿다

金融界

에 잇서서는 大體從來의 傾向을 維持하야 四月에는 郵便貯金의 利下가 잇섯스나 金融業者는 物價의 騰高와 滯貨增加의 趨勢에 鑑하야 不動產其他에 對한 長期資金의 放出을 躊躇하야스므로 一部에 잇서서는 金融이 圓滑을 缺한 傾向이 엇지 안엇지만 大勢는 相當繁忙裡에 經過하고 當期末의 朝鮮內同業者의 預金은 三億四千一百萬圓 貸出은 七億一千一百萬圓이엇다 이것을 前年同期末에 比하면 預金은 一千三百萬圓增이오 貸出은 一億一千八百萬圓의 激增을 示現하얏다 此間京城에서 共濟、共立、興業의 三無盡會社合同에 依하야 强力한 中央無盡會社가 創立되엇고 株式會社東一銀行은 內部的改善의 必要로 遂히 當行의 支持斡旋에 依하야 其機構가 整備되고 業務의 圓滑한 運營을 期하게 되엇다

如斯하야 朝鮮經濟의 異常한 進展은 當行業務에 反映하고 銀行券發行高와 如함도 本年一月一日부터 滿洲國內의 發行은 이것을 廢止하얏슴에 不拘코 現在의 發行高는 前年同期를 凌駕하는 實狀이다. 政府는 當行의 保證發行限度五千萬圓을 一億으로 擴張할 必要를 認하고 今回의 臨時議會에 朝鮮銀行法中改正法律案을 提出하야 이제 公布케 되엇스니 將來一層當行의 活躍을 促하는 것이다

魚油統制協定會議
共販制의機能擴大?

本年의 魚油統制基本契約協定은 朝鮮合同油脂의 創立其他로 遷延되엇스나 十六日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改訂協議會가 開催되엇는데 統制基本契約의 改正에 就하야서는 大體如左한 諸點이 問題가 되리라 한다

一、統制의 形式인 魚油共販은 現行以外에 大신할 方法이 업슴으로 現機構를 强化하는데 內容에 잇서서 改正할 것

一、卽 現不定期入札은 月一回로 期間이 길고 量이 만키 때문에 이를 二回가량으로 하야 期間과 量을 合理化할 것

一、定期入札은 月末 一回인데 이는 月初와 月末로 할 것

一、保管量은 現在 生產油의 三割로 되어 잇는데 이를 다시 低下할 것

結局 現魚油共販制를 다시 合理化하고 그 機能을 發揮시키는 것으로 落着을 보게 되리라 한다

鮮銀總會四分配可決

鮮銀의 第五十六回通常總會는 十六日午前十時부터 東京支店에서 開催하고 第五十六期諸決算案과 利益金處分案을 附議한 結果 異議업시 可決하얏다

利益金處分案은 如左하다(單位圓)

當期純益金	三六二〇、六六一
當期純損金	一五一、一二〇
前期繰越金	二四四、六〇六
合計	三、四六八、九五〇
損失補塡準備金	三〇〇、〇〇〇
配當平均準備金	三〇〇、〇〇〇
役員賞與金及交際費	一六〇、〇〇〇
舊株配當金(年四分)(政府持株一萬五千株을除함)	二〇〇、〇〇〇
新株配當金(年四分)	一、〇一〇、〇〇〇
後期繰越金	三九八、九五〇

鮮銀大償却
二千五十萬圓

鮮銀의 十二年度上期決算은 二千一百三十三萬六千六百十九圓의 償却、十五萬圓의 有價證券償却、十萬圓의 諸物償却으로 合計約二千四十八萬圓의 大償却을 하엿는데 右는 滿洲支店의 整理에 件한 臨時償却二千萬圓이 그 大部分을 占한 것이다 期末의 同行의 預金은 二億九千百二十三萬圓、貸付는 約三億八千萬圓에 達하엿다

局鐵上旬荷動減
受託制限影響

鐵道局八月上旬分荷動狀況을 보면 初旬으로부터 列車運轉回數減少와 受託制限等으로 因하야 石炭、鑛、雜貨等이 增加하엿슴뿐이고 其他各種은 모다 減少되엿다 本旬의 成績은 十四萬三百六噸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三萬五千七百四十六噸이나 減少되엿다

鮮銀上海支店避難

上海에서 支那側의 共同租界爆擊에 依하야 同租界가 세이호텔에 避難中인 鮮銀支店行員家族約五十名은 十四日 호텔도 爆擊을 受하얏슴으로 臺灣銀行支店地下室에 다시 避難中인데 多幸히 死傷者는 업다하며 鮮銀支店은 無事하나 休業同樣의 狀態이다

(八月十二日) ▲京城府長谷川町一〇五東聚盛商店▲藥種商京城府本町四丁目六五 川浪淸次▲京城府鍾路六丁目一五〇외二方俊楠

京城物價更騰
比前月一厘의微騰이나
比前年同期六分二厘高

朝鮮銀行調査에 七月中의 京城卸賣物價指數는 明治四十三年七月을 一〇〇으로 基準算出한 二千一百二十品中 比前月騰貴十二品目의 平均指數가 二〇四、三三으로서 前月中에 比하야 一厘一毛의 微騰이나 前年同月에 比하야 六分二厘三毛의 騰貴이엇다 調查品二十品中比前月騰貴十二品、低落九品、保合九이엇다

今日의市勢 (十六日)

株式 東新筆頭 上放

前場暴騰 休日中에 全中戰局中心한 上海戰局은 支那側의 重要根據地를 蹂躪하엿다고 傳하야 今朝寄付는 東阪이 모두 上寄이엇는데 當地만은 再昨의 過高로 少强程度 地場을 始하게 되엇고 戰捷報道를 好感한 硬派는 積極買物을 斷續 注入하고 軟派踏物도 加하야 東新株를 先頭로 市勢는 急騰하기 始作하야 東新은 百四十一圓突破 奔進하고 鐘新은 百四十九圓臺로 暴騰하엿스며 大新七十八圓臺 日產七十一圓臺를 回復하는 等으로 만에 明朗한 場面을 展開하고 前場을 마치엇다

後場續强 後場은 東新一高 發新八低로 始場한 後 揉合이되엇스나 市勢는 依然强調를 繼續하면서 大引되엇다

戰捷市勢

上海關戰에 人氣가 刺戟되고 特別召集說은 第三次增稅를 豫想할 이란 臆測으로 前週末低迷狀을 보이든 市勢는 休日을 끼고 上海의 戰局이 有利히 展開되어 支那空軍의 敗戰으로 第一次的戰捷으로 深遣는 오랫동안 慘落을 거듭한 市場에 異常한 衝動을 與하야 有力側의 買進과 함께 小口買方의 路物이 續出하야 主力株中心의 奔騰을 演出하야 오랜만에 明朗한 場面을 보이게 되엇는데 勿論 이 背後에는 政府의 金融工作이 有力하게 作用하고 잇는것을 忘却할 수는 업스나 時局을 材料로 實 人氣가 熾烈을 極한 때이라 市勢의 反擊은 意外로 猛烈할 뿐아니라 이로서 人氣의 轉換이 된다면 去般의 低價가 完全한 底入이 아니될 수 업슬것이니 反賣라고 보아 작고 賣據하는 것은 危險할 일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업다 다만 이로써 入完了가 된다 하드래도 買人氣는 依然强하고 取組關係로 해서 底高後에는 다시 底調的一落이 잇슬 것도 거의 確實하므로 高價飛付도 警戒할 일이다 買方으로서는 押目待買가 오흘것갓고 賣方으로서는 다음의 底調一落이 逃避處가 될것이 아닌가 한다

雜株도 追隨高

主力株의 騰落如何에 不拘코 近者에는 賣株를 가지는 것을 危險視하야 雜株의 買氣는 稀薄하엿는데 아직도 雜株의 買氣는 主力株에 比하면 劣勢나 今朝에는 日鐵新의 二圓五反撥인 二十四丁을 筆頭로 主力株高에 追隨하엿다 昭和人絹一圓二高인 四七、五日本新은 四六、〇인 一圓高 日本棉花新二三、〇이 不變等으로 鐵株는 反撥이며 商船新一圓高인 三〇、五 郵船新二六、〇이다

國債 保勢 買氣消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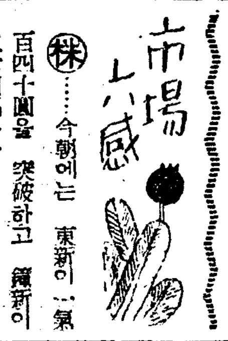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事變擴大에 伴하는 軍備擴張으로 再增稅不可避의 形勢가 되며 買氣全혀 消散되여 日本內地債는 모두 無氣力狀態이며 佛貨債는 休日前 買進되 反動으로 五錢下押하엿다

▲甲五分利 一〇一五 ▲二回四分利 一〇一三五

期米 軟弱 續落步調

前場續落 一休今朝는 晴天으로 警戒이 엇는 東支那의 颱風은 昨日支那內陸으로 進行되고 또 朝鮮米의 拂下說로 買人氣旺盛이 든 끄레 今朝阪地先限三十一圓三十錢인 九丁反落을 報하고 當은 三十一圓二十 五六圓臺를 割하 明朗場面을 展開◆오래 低落의 뒤오、大衆이 賣募하는때요 上海서는 戰捷을 傳하고 안으로서는 政府의 金融對策이 잇스니 모두가 買方에 加擔할 생이라

(株)……今朝에는 東新이 一氣百四十圓을 突破하고 鐘新이 …



米……一休今朝는 警戒中에 잇든 上海附近의 颱風도 揚子江中流地方으로 上陸되고 政府所有朝鮮米의 拂下도 又는 日本內地에서는 出征軍人家庭에 政府米를 拂下하기로 發表되어 四圍가 無非弱材 ▲그래서 東阪도 告하엿다 大勢는 結局軟弱? ▲그러치만 當中兩限은 正米의 實勢로 比하여 사지 못하는 만큼 依然强氣할것을 前期 ▲當中이 高價를 維持하는 때는 先限이 低價를 氣이 ▲中限戰이 끗나면 期米도 新政局을 맛는 것은 거의 確實 ——(金剛城)

中限戰의今後

當中兩限은 新正米의 關係上 先限과는 別個問題로 挽近當限은 三十二圓二十五錢까지 昂騰한바 잇섯고 當地正米는 三十二圓八、九十錢臺의 高價를 示現하는 바 此當限은 正米보다 高價를 示하엿스나 中限은 正米보다 一、二十丁低인 三十二圓七十錢까지 昂騰하엿다가 反히 三十錢臺로 低落하엿다 그러데 此에 一考를 要할것은 今後當限時代에 入하야 正米의 變遷가 如何히 될것이며 又는 其時當限은 如何한 市勢를 示할가 할인데 勿論 來月은 今月보다 할수잇스며 떨아서 實勢의 有無를 은 期待할 것이오 又는 實米化하는 點에 잇서 正米와의 差 없을것을 可期할 수 잇다 그러고 各店을 通하야 中限의 賣方으로서는 그 買려는데는 當限店으로서는 그 買物을 時代하는 形式을 取한다 는 說도 잇스므로 中限의 取組는 그 다지 좋지 안코 最後一戰을 期하려고 軟派는 策動하는 모양이다 今後決戰이 果如何

四圍모다弱材

朝鮮米의 八月一日 幾拂米는 百四十九萬餘石으로 未曾有의 減少를 示하엿슴에도 市勢는 客月以來에 旣히 行動을 一巡하여 온 느음 端境期의 在米難은 可謂慢性的 强材로 認定되어 새삼스러히 材料視하지 안코 꾸준하게 强味를 失치 안을 뿐이 드는바 昨今에 入하야 日本內地에는 出征軍人의 家庭에 限하야 廉價로 政府米를 拂下하기로 發表되고 朝鮮도 政府所有米 가 三十四萬石인데 端境期의 米價暴騰을 防止하기 爲하야 또한 拂下하기로 되는 모양이오 昨日上海方面의 颱風은 揚子江中流地方으로 上陸하야 朝鮮及日本內地는 何等의 影響이 업시 好順氣象을 繼續하는 四圍의 無非弱材임을 볼아 各地共히 軟勢를 呈하고 잇다 그런데 此에 一考를 要할것은 各物價에 比하야 米價는 依然割低임과 明年度豫算의 膨脹을 豫想하는 今日에 諸物價가 更落할 餘地가 업는 等點으로 보아서 米價의 反落을 期待키 難하고 又는 앞으로의 颱風이 前例에 依하야 아직도 三、四回나 남아잇스므로 今後어떠한 災害가 잇슬지 모르는 만큼 買安心은 時期尙早의 嫌이 업지 아니하다

後場下游

後場은 二十九圓二十一錢인 前止同價로 始한 後 下游勢에 保合모양을 보엿스나 依然市勢는 軟弱하엿다

正米 定期低로 軟調

京城不變 定期는 低落步調를 示하엿스나 現物値小인 때라 影響이 엇고 保合이엇다 四等三二、五〇 一等白米三二、八〇、五〇

仁川保合 時局의 餘波를 받어 到着도 不順한 現狀이어서 低價物은 자최를 감추고 잇스나 不買纔價으로 買氣도 업고 市場은 閑散裡에 市價도 不變이엇다 ㊉穀良三等三二、八〇 四等三二、七〇 銀坊主三三、〇 多摩錦三三、四〇 一〇一等白米四三三、六〇

釜山落調 品薄으로 仁川 瓊도 强硬하나 極度의 不振으로 買氣薄 市勢는 小口買로 二十錢落調를 演하엿다 ㊉穀良三等三三、二〇 四等三三、二〇 一等白米三三、八六

大邱軟化 一般이 買物시는 時에 今朝定期의 急落으로 人氣도 萎縮되어 市價十錢低를 告하엿다 ㊉穀良三等三二、六〇 四等三二、四〇 一等白米三三、六〇 六五

群山續落 依然日本內地商談杜絶인 데에 期米의 一齊低落으로 買氣는 全然업고 市價二十錢低를 示하엿다 ㊉銀坊主三三、二〇 四等三三、 一等白米一四、二〇

木浦軟調 依然實買稍氣의 市場이나 今日定期下落으로 氣配도 十錢安이엇다 ㊉銀坊主三三等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中限、先限 賣方・買方 各店別 數量) [illegible]

○桑野取引所 仁川米豆取引所取引員 電話長六二九番

今日財界 (十六日)

◆米 仁川期米先限 三一、三〇 大阪期米先限 三一、三二 京城一等米一石 三二、〇〇 正米(仁川)一等 [illegible] 一斤 [illegible] 工業神戶 [illegible]

◆株 朝取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新 [illegible] 綿花 [illegible] 人絹 [illegible] 砂糖 [illegible]

朝取 金益證券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一六九、五六一、三九六

金銀 石土白金 分析 賣買 金銀賣買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ノ九五 電話本局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

金銀白金 京城明治町 杉山商會

海外經濟 (十四日)

(紐育株式・綿花・小麥・生絲・銀塊・倫敦等) [illegible]

銀行券 (十四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神阪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對上海 [illegible] 對英 [illegible] 對米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氣配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紡織製品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算定代引日步 ◆短期主要取組高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釜山期米 ◆群山期米 ◆大阪期米 ◆大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前場・後場 當限・中限・先限) [illegible]

京城物價 (十六日)

▲白米(斗、單位錢) [illegible] ▲麥粉 [illegible] ▲石油 [illegible] ▲紙物(單位厘) [illegible] ▲燃料 [illegible] ▲穀物(單位錢) [illegible] ▲海產物(單位錢) [illegible] ▲染料 [illegible] ▲藥料 [illegible] ▲木材 [illegible] ▲本綿 [illegible] ▲人絹 [illegible] ▲毛絲 [illegible] ▲牛皮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生絲

◆橫濱生絲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